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50호 【루계 제25924호】 주체107(2018)년 2월 19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 설

일군들은 혁명적인 총공세의 기수, 전위투사가 되자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혁명적인 총공세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고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가장 의의깊고 성대하게 맞이하려는것이 전만군민의 한결같은 열망이고 의지이다.

대중의 앙양된 기세에 일군들의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칙의 일본새가 안받침될 때 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만리마속도로 내달리는 주체조선의 비약의 기상이 더 높이 떨쳐질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기수, 전위투사가 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과 념원을 받들어 사회주의강국의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거창한 작전들을 펼치고 혁명하게 이끌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올해신년사에서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투쟁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전인민적인 총공세로 공화국의 전반적국력을 새로운 발전단계에 올려세우고 조국번영의 최전성기를 펼치자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고 전투적호소이다.

오늘의 혁명적인 총공세의 기수는 우리 일군들이다.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당의 로선과 정책이 철저히 관철되고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자면 일군들이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혁신적인 안목, 완강한 실천력을 지니고 사업을 설계하고 전개해나가는 일군이 있는 곳에서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전환되고 당의 구상과 결심이 현실로 펼쳐나는 법이다.

지금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 공화국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최후발악하고있다. 전대미문의 제재봉쇄와 광란적인 핵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전전선에서 전면적부흥을 이룩해나간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의 총공세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달려있다. 일군들이 당정책의 열렬한 옹호자가 되고 유능한 작전가, 아전형의 지휘성원이 되면 해당 부문, 해당 단위가 기운차게 일떠서게 되지만 일군들이 빈소리군이 되고 판조자가 되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한개 초소가 주저앉게 된다.

인민군대는 당의 명령을 받으면 단숨에 공격진지를 차지하고 장령으로부터 전사에 이르기까지 한마음한뜻이 되여 당의 구상과 결심을 빛나는 실천으로 받들어나가고있다.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호를 웨치는 지휘관들의 모습과 전투장을 뒤흔드는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북소리는 군인들에게 천백배의 용기를 안겨주고 그들의 심장에 혁명열, 투쟁열, 경쟁열을 북돋아주는 원천으로 되고있다. 군인대중의 정신력을 폭발시켜 《이제여경》과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 려명신화를 안아온 인민군대지휘관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헌신적인 노력은 현시기 우리 일군들이 어떻게 살며 투쟁해야 하는가를 깊이 새겨주고있다.

지금 일군들에 대한 우리 당의 믿음과 기대는 대단히 크다. 우리 일군들이 혁명적인 총공세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갈 때 당정책의 정당성이 뚜렷이 확증되고 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심이 더욱 굳건해지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새로운 기적적승리와 성과들이 이룩될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올해의 투쟁을 통하여 자신들의 당성, 혁명성, 인민성을 당앞에 검증받는다는 자각을 안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 우리의 사회주의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을 뼈속깊이 새아박아야 한다.

오늘의 혁명적인 총공세에서 몇백만의 쌀이나 억대의 금은보화보다 더 귀중한것이 혁명신념이다. 신념이 강한 사람만이 혁명의 길을 끝까지 갈수 있고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솟구쳐오를수 있다.

우리에게는 주체의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최강의 군력과 자립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으며 불가능을 모르는 인재대군과 강용한 인민이 있다.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지난 기간의 투쟁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은 우리의 토대와 잠재력,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앞길을 개척해나갈수 있다는 신심과 락관을 백배해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천리혜안의 선견지명과 특출한 령도력은 사회주의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이다. 모든 일군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이끄시기에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이라는 투철한 신념을 지녀야 한다. 조건이 어렵고 투쟁과업이 방대할수록 든든한 배심을 가지고 일해나가야 한다. 보신주의와 요령주의, 수입병과 안일해이를 비롯한 온갖 사상적병집을 불태워버려야 한다.

모든 일군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 인민앞에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투철한 각오를 가지고 사업을 드세차게 밀고나가야 한다.

자기가 맡은 일은 죽으나사나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해내며 당이 준 과업을 무조건 결사관철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이악하게 투쟁하는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일군들이 지녀야 할 투쟁기풍이며 창조본때이다.

일군들이 맡고있는 초소와 임무들은 서로 다르지만 어느것이나 다 혁명의 최후승리와 하나로 련결되여있다. 이 땅의 모든 초소와 일터들이 창조와 증산으로 들끓고 첨단성과들을 이룩해나갈 때 우리 조국은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할수 있다.

일군들은 당정책의 옹호, 사회주의조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초소들을 맡겨준 당의 크나큰 정치적신임을 심장깊이 새기고 높은 사업실적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자신을 초불처럼 깡그리 불태워야 한다. 올해에 자기 부문, 자기 단위앞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깊이 연구하고 피타는 사색과 통이 큰 작전으로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당의 결심은 곧 실천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지니고 하늘이 무너져도 두발을 떡 뻗치고 서서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당정책을 완강하게, 완벽하게 집행해나가야 한다. 앉아서 조건타발, 우는소리나 하는 패배주의한숨소리, 실속이 없이 거충다짐으로 일해나가는 형식주의절발림을 비롯하여 혁명의 전진에 장애물이 되는 낡은 사상관점과 그릇된 일본새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자력자강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최악의 조건에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해나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모든 일군들은 당의 자강력제일주의사상을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승리봉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영웅조선의 백절불굴의 기개와 담대한 배짱, 무궁무진한 힘을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일군들은 대중의 불굴의 정신력과 과학기술력을 정수로 하는 자강력을 최대로 증대시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반드시 점령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침입식으로 벌려 누구나 당정책을 자기 집안일처럼 환히 알고 만리마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불타는 애국충정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는데 경제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길이 있다. 과학연구사업에 력량을 집중하여 훌륭한 성과들을 이룩하며 그것을 현실에 제때에 도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과학기술학습열풍을 일으켜 자기 단위에서 창의고안의 명수, 고급기능공, 로동자발명가들이 수많이 나오게 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대중과 고락을 함께 하고 이신작칙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전위투사가 되여야 한다.

힘은 군중에게 있으며 군중을 교양하고 불러일으키는데서 일군들의 이신작칙보다 더 위력한 정치사업은 없다. 대중은 물을 차리고 말을 앞세우는 일군이 아니라 허물없고 진심하며 헌신적인 일군을 따른다. 모든 일군들이 대중과 고락을 같이하고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 서야 전인민적인 총공세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릴수 있다.

일군들은 모든것이 부족한 때일수록 인민들과 꼭같이 검박하고 정범하게 생활하여야 한다. 생산현장과 포전에 들어서면 기계기름냄새, 거름냄새가 풍기는 일군, 인민들의 집을 찾으면 어머니의 체취가 느껴지는 일군이 인민이 바라는 참된 일군이다. 늘 생산자대중과 한데 어울려 일도 함께 하면서 일편단심 당을 따라 만난을 헤쳐온 우리 인민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를 온몸으로 체득하여야 한다.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기준으로 삼고 사업을 설계하고 전개하며 인민들의 마음속고충과 생활상애로를 풀어주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여야 한다. 일군들은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호를 웨치며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에 어깨를 들이밀고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한다.

일군들이 높은 실력을 소유하는것은 혁명적인 총공세가 벌어지고있는 현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당에 대한 일군들의 충실성은 직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높은 실력에 의하여 담보된다. 일군들의 실력이자 해당 부문, 해당 단위의 실적이다. 아는것이 적고 능력이 부족하여 적극성과 창발성이 없이 헌상유지나 하는 일군, 어제날의 성과에 만족하며 자리지킴이나 하는 일군이 있는 곳에서는 백날, 천날이 가도 혁신이 일어날수 없다. 일군들은 오늘의 만리마대진군에서 있으나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될 사람, 걸린 고리를 풀어나가는데서 집단이 찾고 대중이 기다리는 실력가가 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만리마시대의 요구에 맞게 자신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언제나 손에서 책을 놓지 말고 꾸준히 학습하여 현시기 당에서 무엇을 바라고 의도하는가 하는것을 환히 꿰들고있어야 한다.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에 자신의 과학기술수준을 따라세우고 자기 부문, 자기 분야의 과학기술에 정통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여야 한다. 책임일군일수록 실력가, 박식가가 되여 어느 부문이나 막히는데가 없는 다방면적인 지식을 습득하여야 하며 광범한 대중과 교감이 될수 있게 여러 분야의 상식도 많이 알고있어야 한다.

당조직들은 일군들이 혁명적인 총공세의 기수, 전위투사가 되도록 적극 떠밀어주어야 한다.

훌륭한 자식의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듯이 실천가형의 쟁쟁한 일군들이 배출되는 곳에는 어머니당조직이 있다. 대중이 일군들의 스승이라면 당조직은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보살펴주는 어머니품이다.

전당의 당조직들은 모든 일군들이 자기의 전투진지에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목 단단히 하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어야 한다. 일군들속에 남아있는 그릇된 사상관점과 낡은 일본새를 결정적으로 뿌리빼고 우리 당의 혁명사상, 백두의 공격정신과 풍부한 지식, 능숙한 군중공작방법을 갖추어나가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대책하여야 한다. 일군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강화하며 일군들이 자신을 특수한 존재로 여기는 헌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교양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야 한다. 일군들이 늘 아래에 내려가 생산활성화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나가는 혁명성이 강하고 심적을 내는 유능한 아전형의 지휘성원이 되도록 적극 밀어주어야 한다.

일군들이여, 모두다 당의 믿음과 기대를 심장에 새기고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오늘의 총공세에서 뚜렷한 삶의 자욱을 새겨나가자.

대고조진군에로 고무추동하는 집중경제선동

평안남도안의 당조직들과 당초급선전일군들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함에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평안남도안의 당조직들과 당초급선전일군들이 탄광, 화력발전소들에서 집중경제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려 탄부들과 전력생산자들을 증산투쟁에로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에서 중시하는 대상들에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집중시켜 새로운 비약의 봉화를 지피올리기 위한 북소리를 세차게 울려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힘있게 벌어지는 경제선동대들의 집중경제선동에 보조를 맞추어 화력탄보장을 맡은 탄광당조직들이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세차게 울리고있다.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당일군들과 가족들로 7개의 경제선동대를 뭇고 갱들에 나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 떨쳐나설데 대한 내용의 선동시와 노래 《사회주의전진가》 등 다양한 작품들로 경제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와 함께 기업소책임일군들이 많은 후방물자를 가지고 동발나무생산전투가 벌어지는 현장들에 나가 화선식정치사업과 이신작칙으로 로동자들을 로력적위훈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그리하여 제기되는 애로와 난관이 많았지만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단위앞에 맡겨진 동발나무생산계획을 철썬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선동원, 학습강사, 강연강사들과 기동예술선동대, 녀명예술선동대 대원들, 방송선전차 방송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경제선동력량과 수단들의 솔동모임을 진행하고 탄광들에 나가 정치선전, 경제선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함으로써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신년사과업관철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천성청년탄광 당조직에서는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전투현장들에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탄부들을 증산투쟁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탄광책임일군들이 전투현장에 나가 정치사업도 진행하고 걸린 문제들도 제때에 풀어주어 많은 베아링과 콩크리트침목 등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안의 탄광, 화력발전소의 선동원들도 이에 합세하여 맹활약하고있다.

그들은 당초급선전일군으로 내세워준 당의 높은 신임에 충정으로 보답할 일념을 안고 화선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리면서 탄부들과 전력생산자들을 증산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조양탄광 3갱 채탄3중대 1소대 채탄공 백익선동무는 이신작칙으로 소대원들을 석탄증산투쟁에로 불러일으켜 소대앞에 맡겨진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갱이 붕락되여 석탄생산계획을 수행하는가 마는가 하는 난관이 조성되였을 때 그는 현장에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표어들과 전투속보를 신속히 게시하고 전투원들앞에서 막장을 하루빨리 복구하고 석탄증산으로 우리 당을 절사옹위해나가자고 절절히 호소하였다. 그리고는 20여일동안 소대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전투를 벌리며 수십m의 붕락구간을 복구해냄으로써 수천t능력의 탄발을 마련하고 석탄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하였다.

지난해 11월말 갱목이 부족하여 석탄생산에서 지장을 받게 되였을 때도 앞장에서 많은 동발을 회수리용한것을 비롯하여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감으로써 지난 10여년간 소대가 해마다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지난 1월 중순에는 지압에 의해 막장에 세운 여러대의 동발들이 꺾어져 작업이 중단되자 앞장에서 제일 위험한 구간을 맡아 동발교체작업을 진행하여 석탄생산의 돌파구를 열어제꼈다.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남력청년탄광 1갱 채탄1중대 2소대 운반공 민히선동무도 당의 높은 신임에 충정으로 보답할 일념을 안고 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려 소대원들을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부족되는 자재로 하여 석탄운반에서 지장을 받게 되였을 때 그는 하자고 절심한 사람에게는 담벽도 문으로 보이지만 신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열린 문도 담벽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소대원들을 불러일으켜 석탄운반을 중단없이 진행하도록 하였다. 지난해 6월 만차가 고장났을 때에는 수십리나 떨어진 어느 한 단위에 찾아가 필요한 자재를 해결해옴으로써 소대가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밖에도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천성청년탄광 7갱 굴진4소대 굴진공 신장일, 10갱 2중대 콘베아운전공 리현선,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월봉탄광 운반갱 벨트중대 하차소대 하차공 박학숙,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보온직장 3작업반 보온공 도상일동무들도 당초급선전일군이 된 긍지를 안고 지난 기간 어려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선동활동을 박력있게 전투적으로 벌려 탄부들과 전력생산자들을 증산투쟁에로 적극 불러일으켰다.

도안의 탄광, 화력발전소의 당조직들에서 맹렬하게 벌리는 집중경제선동과 당초급선전일군들의 힘있는 화선식정치사업은 대고조진군에 떨쳐나선 탄부들과 전력생산자들을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증산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본사기자 최영길

량강도의 감자산지들에서 농사차비성과 확대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제시 2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량강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감자농사를 본때있게 지음 드높은 열의를 안고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북부고산지대의 강추위를 이겨내며 대홍단, 삼지연, 백암군을 비롯한 감자산지들에서 농사차비전투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타격방향입니다.》

량강도의 책임일군들은 대홍단, 삼지연, 백암군의 감자농사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 질좋은 거름을 정보당 50t이상 낼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혁명적전개력과 조직적수완으로 이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고있다.

지난 1월말부터 현재까지 도급기관, 기업소 60여개 단위들에서 많은 화물자동차들을 동원하여 수백t의 니탄을 백암군 먹포지구 농장들에 집중수송하고 1 500여t의 질좋은 거름을 실어내였다.

전시식량증산성과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한 혁명의 전세대들처럼 감자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대홍단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거름생산전투장들에서 헌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근책임일군들은 높은 수확을 거두자면 감자밭에 거름을 많이 내야 한다는것을 명심하고 년초부터 여기에 힘을 집중하였다. 일군들의 힘있는 정치사업과 빈틈없는 조직사업에 따라 읍지구로동자, 사무원, 무양가족들까지 떨쳐나섰다. 화물자동차와 많은 소달구지와 밭구들까지 동원된 속에 명도업적단위 농장들에 3 500여t의 유기질비료를 실어낸것을 비롯하여 2 000여정보의 감자밭에 65만 2 000여t의 거름을 반출하였다.

홍암, 신덕농장에서는 지난 1월말부터 유기질비료생산 및 반출을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10여일동안에 2만여t을 생산하여 실어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군안의 70여개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감자농사를 함께 책임졌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탈구지와 분무기를 비롯하여 25종에 4만여점의 중소농기구들을 농장들에 보내주었다.

혁신의 새 소식은 삼지연군에서도 전해졌다.

근책임일군들은 삼지연군을 감자농사의 본보기단위로 꾸릴데 대한 당의 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첫시작부터 목표를 높이 세우고 기세좋게 내달렸다.

지난 1월초부터 시작하여 20일 남짓한 기간에 홍계수농장의 감자밭들을 규격포전으로 정리하는 기적적성과를 이룩하였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안의 121개 기관, 기업소들에서 많은 로력과 통전기재들이 동원되여 집단적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갔다. 결과 짧은 기간에 튼튼한도로를 형성하고 언땅을 까내면서 2만 2천여그루의 나무를 심어 바람막이숲을 조성하였으며 수천m³의 부사를 수송하여 도로에 깔수 있었다.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한속공격의 기상을 안고 포대농장의 포전들도 규격화하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어 헌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백암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함에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에 농사차비성과로 화답하고있다.

군일군들은 현장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니탄생산 및 수송전투를 지휘하였다. 군안의 근로자들은 강추위속에서도 굴함없는 공격전을 벌렸다. 결과 2월 18일현재 수백t의 니탄을 생산하여 수송하였으며 하루가 다르게 실적이 오르고있다.

혁신의 기상은 다른 군들에서도 세차게 나래쳐 도안의 감자산지들에서는 올해농사의 밝은 전망을 확고히 내다보고있다.

감자농사에서 혁신을 안아올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총공세의 기상에 떠받들려 성과는 날이 갈수록 더욱 확대되고있다.

강금성

강철전선에 더 많은 파철을

함경남도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올해의 총진군을 다그치고있는 함경남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1월에 이어 2월에도 군중적으로 많은 량의 파철을 모아 금속공장들에 집중수송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2월 첫주 도안의 시, 군, 구역들과 기관, 기업소들에서 수백t의 파철을 강철전선에 보내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애국주의를 따라배우고 구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일군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강철생산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파철수집사업에로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인민위원회 해당 단위 일군들은 인민경제 선행부문의 하나인 금속공업부문에 더 많은 파철을 보내주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을 세우고 모든 도급기관들과 시, 군들에서 이 사업을 활기있게 벌려나가도록 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도인민위원회, 도체신관리국을 비롯한 도급기관의 일군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많은 파철을 수집하였으며 운반수단을 총동원하여 강철전선에 보내주는데 앞장섰다.

파철지원이자 강철증산이라는 확고한 관점밑에 도송배전부, 함흥청년전기기구공장, 도협동수산경리위원회 등 여러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려는 결의밑에 많은 파철을 모아들이였다.

함흥모방직공장과 도지방공업관리국 등에서는 낡은 설비들에 대한 폐기사업을 틀어쥐고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계획을 철썬 넘쳐 수행하는 모범을 보이였다.

특히 국가과학원 함흥분원의 일군들은 파철수집사업을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그 어느때보다도 많은 량의 파철을 강철전선에 보내주었다.

함흥시에서는 시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지도기관 일군들이 파고철수집사업의 앞장에서 모범을 보이면서 아래단위들에서도 강철전선을 힘있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도록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였다.

통흥산구역, 성천강구역, 회상구역, 흥덕구역, 흥남구역, 해안구역, 사포구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강철전선을 지원하는 것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떨쳐나 많은 량의 파철을 수집하였다.

한kg의 파철이라도 더 모아 경제강국건설에 보탬을 줄 애국의 마음안고 단천시와 신포시, 북청, 정평, 함주, 금야, 홍원, 신흥, 덕성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파철수집사업을 근기있게 내밀어 많은 량의 파철을 강철전선에 보내주었다.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힘있는 지원은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철강재증산으로 빛내이기 위해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키고있는 강철전사들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특파기자 김경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본사기자 최충성 찍음

력사에 길이 빛날 2월의 선언

2월 19일!

우리 당과 혁명력사에 뜻깊게 새겨진 이날의 의미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더욱 뚜렷이 부각되고있다.

지금으로부터 44년전 2월의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신것은 참으로 커다란 사변이였다.

수령이 창시한 혁명사상을 체계화하고 정식화하여 혁명과 건설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제시하는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할뿐아니라 수령의 혁명사상을 계승하고 발전풍부화해나갈수 있는 특출한 자질과 실력을 갖춘 위인만이 수행할수 있는 력사적위업이다.

우리 혁명은 수령의 사상과 로선을 기치로 하여 전진하여왔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을 창건하시고 새 사회건설을 령도하신 때로부터 우리 당, 우리 사회를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이 시작되였다.

사회주의건설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 주체혁명의 새시대를 맞이하였던 지난 세기 70년대는 우리 사회의 사상적일색화과정을 전면적으로 다그쳐나가는것을 중대한 력사적과제로 제기하였다.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김일성주의를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김일성주의의 요구대로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를 건설함에 대한 주체의 혁명강령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비상한 탐구력으로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여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김일성주의가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더욱 빛을 뿌리게 하시였습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은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진리성과 영원성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을 지니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한 길을 정력적으로 탐구하여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수령에 대한 순결한 충정과 불면불휴의 사상리론활동의 고귀한 결정체였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앞둔 주체59(1970)년 9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을 몸가까이 부르시여 자신께서는 우리 당급악에 당의 지도사상을 새롭게 밝히는 문제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생각하여왔다고 하시며 당 제5차대회에서 당규약을 수정보충하면서 당의 지도사상을 새롭게 밝히려고 한다고 엄숙히 말씀하시였다.

일군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물론 그도 당 제5차대회에서 당규약을 새로 공포하게 된다는것을 알고 그 준비사업을 해왔지만 당규약에 당의 지도사상을 새로 밝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그러면 이번 당대회에서 채택하게 되는 우리 당규약에 새롭게 밝힐 당의 지도사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입니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일군은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 저도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의 지도사상의 새로운 명시야말로 일대 정치사변이였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과학적으로 정식화하시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벌려나가시였다.

주체60(1971)년 9월 평강도를 현지지도하실 때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낮에는 중앙과 도의 일군들을 만나시여 사업을 토의하시고 밤에는 밤대로 깊이 사색하시고 글을 쓰시며 새벽을 맞군 하시였다. 그 나날에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하신 발자취가 깃들어있는 무포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담화를 하시면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오직 수령님의 존함과만 결부하여 부를수 있는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혁명사상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 밤마다 사색을 하며 글을 쓰는것도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정식화하여 세상에 내놓기 위해서이라고, 오늘 수령님의 거룩하신 발자취가 어려있고 항일혁명선렬들의 뜨거운 피가 스며있는 두만강가에서 이렇게 남시를 드리우고 사색을 더듬으니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정식화하는데서 막혔던 생각이 확 트인다고, 이제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수령님의 존함과 결부하여 과학적으로 정식화하여 세상에 선포하는 사업을 확신성있게 할수 있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까운 앞날에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여 세상에 선포하고 김일성주의기치를 시대의 앞장에서 높이 추켜들고나갈 자신의 확고부동한 결의를 표명하시면서 두만강의 흐름이 영원하듯이 김일성주의는 우리 시대뿐아니라 미래에도 인민들의 투쟁의 기치로 빛을 뿌리게 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그때로부터 몇해가 지난 주체63(1974)년 2월 19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3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결론에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였다.

지금도 력사적인 2월의 장엄한 선언이 강산에 메아리치는것만 같다.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김일성주의는 주체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새롭고 독창적인 위대한 혁명사상이라고 하시면서 김일성주의는 한마디로 말하여 주체의 사상, 리론 및 방법의 체계이라고, 김일성주의야말로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혁명의 참다운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이라고 선언하신 위대한 장군님,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의 선포는 자주시대 혁명적당의 투쟁강령과 그 실현을 위한 전략전술에 관한 문제에 완벽한 해명을 주고 우리 당과 혁명의 앞길에 새로운 리정표를 세운 력사적사변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위업완성을 위한 투쟁한 목표와 설계도를 밝혀주심으로써 우리 혁명은 당건설과 국가건설, 무력건설과 경제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며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력사의 분수령에 올라서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한 독창적인 사상적일색화강령을 제시하심으로써 전보적인류에게 사회주의위업의 전도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고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운동이 더욱 활력있게 전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비범한 예지와 특출한 령도력,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전군을 이끄시여 우리 조국이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더불어 세계에 빛을 뿌리게 하시고 민족의 무궁한 강성번영을 위한 만년초석을 쌓으신 위대한 장군님은 참으로 희세의 정치가이시였다.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되였다.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비상한 탐구력으로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여 우리 당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였다.

천리혜안의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원리와 내용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주체사상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영원히 고수하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튼튼한 사상리론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으며 우리 혁명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는 새로운 력사적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내세우고 줄기차게 투쟁하여온것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본사기자 김 철 혁

혁명의 만년재보

백두산밀영

백두산밀영은 1930년대 후반기부터 1940년대 전반기까지 조선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고있은 백두산지구비밀근거지의 중심밀영으로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였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이다.

우리 민족의 넋이 깃들어있고 조선혁명의 깊고도 억센 뿌리가 내린 혁명의 성산 백두산기슭의 소백수골 수림지대에 자리잡고 있다.

주체25(1936)년 력사적인 동강회의이후 국내 백두산지구에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중심적령도거점을 꾸리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웅대한 구상과 직접적인 지도에 의하여 건설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백두산밀영은 조선혁명의 책원지인 동시에 심장부였으며 우리의 중핵적인 작전기지, 활동기지, 후방기지였다.》

백두산밀영은 백두산지구와 국내각지에 꾸려진 밀영망가운데서 중심을 이루는 밀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백두산밀영을 창설하신 후 밀영을 조선혁명의 중심적령도거점으로, 전략적기지로 삼으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령도하시였다.

백두산밀영에서 탄생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백두밀림의 울부짖는 눈보라와 항일성전의 총소리를 들으시며 류례없이 간고한 항일전의 시련을 체험하시였고 혁명의 폭풍속에서 백두산의 아들로 성장하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백두산밀영에 계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사업을 적극 보좌하시고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들과 국내혁명조직들의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다.

간고한 항일전의 그 나날로부터 수십년세월이 흐른 어느날 백두산의 원시림을 헤치시며 소백수골에 자리잡은 백두산밀영을 몸소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귀중한 혁명의 성지를 훌륭히 꾸리도록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백두산밀영을 원상대로 꾸리고 주체76(1987)년 2월 개영식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백두산밀영을 여러차례 찾으시고 항일혈전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백두산밀영을 더 잘 꾸리고 관리운영하도록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백두산밀영을 여러차례 찾으시어 불멸의 자욱을 새기시였다.

주체89(2000)년 3월 백두산밀영을 또다시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눈덮인 혁명전적지의 풍경이 참으로 불만 하다고 하시면서 사령부귀틀집이며 대원들의 숙소였던 귀틀집들을 일일이 돌아보시였다.

백두산밀영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면서 조선혁명전반을 조직령도하신 사령부귀틀집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백두산밀영교항집 등이 있다.

붉은기 휘날리는 사령부귀틀집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용하시던 책상과 의자, 쇠난로가 있으며 책상에는 군용지도와 색연필 등이 놓여있다.

벽에는 조선지도와 세계지도가 걸려있다.

백두산밀영교항집에는 빨찌산대원들이 위대한 장군님께 짝아만들어올린 나무권총을 비롯한 놀이감들과 키낮은 책상, 녀대원들이 마련해드린 목무이로단과 모포들이 얹혀있는 자그마한 궤짝이 보존되여 있다.

그리고 김정숙동지께서 쓰시던 군용밥통과 물통을 비롯한 부엌세간 등이 있다.

백두산밀영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50돐에 즈음하여 몸소 지으신 송시를 새긴 송시비가 세워져있다.

주체82(1993)년 8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송시비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할데 대한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유서깊은 고향집을 옹위하여 서있는 정일봉은 해발높이가 1798m로서 이 일대의 봉우리들가운데서 주봉을 이루고있다.

백두산밀영일대에는 또한 경위대원실과 재봉소, 비서처, 차단소, 김정숙동지께서 리용하신 박우물, 우등불자리, 혁명적구호문헌 등 수많은 혁명유적, 유물들이 보존되여 있다.

백두산밀영은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녔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과 혁명적신념을 따라배우는 학교로 되고있다.

백두산밀영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한 조선의 정신, 백두의 혁명정신을 심어주며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백 영 미

김 영 남 동 지 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프레토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씨릴 라마포싸 각하

나는 당신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으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강화발전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안정과 번영,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7(2018)년 2월 17일 평 양

위대성교양에 힘을 넣어

신흥군 경흥리당조직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다.

당조직에서는 당세포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위대성교양자료들을 충분히 갖추어놓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벌려나가도록 하고있다.

당일군들부터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위대성교양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특히 당보에 실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보도와 위대성기사들을 독보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다.

당조직에서는 매일 진행하는 당보학습을 통하여 당원들과 농장원들의 가슴마다에 우리 조국을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령도업적과 뜨거운 인민사랑에 대하여 깊이 새겨주고 있으며 농장의 모든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절세의 위인을 령도자로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 승리의 신심과 혁명적락관에 넘쳐 맡은 일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켜나가도록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영농전투로 들끓는 일터들에서 항일유격대식으로 힘있게 벌어지는 위대성교양사업은 대중의 정신력을 적극 분출시키고있으며 작업반, 분조들마다 당면한 농사일에서 새로운 성과를 달성하게 하고있다.

로농통신원 렴 학 철

위대한 장군님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실 불같은 맹세 끝없이 메아리친다.
—백두산밀영혁명전적지에서—
본사기자 리 진 명 찍음

혁명의 노래로 승리 떨치시며

백승의 혁명령도사를 수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대양상을 우러를 때면 그이께서 총대와 함께 틀어쥐시였던 또 하나의 승리의 보검이 가슴에 새겨진다.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

우리 장군님께서는 한평생 노래와 함께 혁명의 먼길을 걸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음악은 창조적로동의 주인인 인민의 생활감정과 시대적지향을 반영하며 인간생활에 뜨거운 열정과 풍부한 정서와 약동하는 생기를 안겨주는 고상한 예술입니다.》

음악!

우리 장군님께서는 음악을 한생의 반려로 삼으시였고 수십성상 노래와 더불어 혁명의 폭풍을 헤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음악을 뜨겁게 사랑하시였으며 아름답고 고상하고 열정적인 음악의 세계를 안고계시였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런 뜻깊은 말씀도 하신것이 아니겠는가.

앞으로 미제국주의자들을 타승하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였을 때 이 투쟁을 령도하신분이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령장이였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음악을 좋아한 참다운 인간이였다는것을 생각하여야 한다. …

조국과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신만큼 우리 장군님께서는 음악을 열렬히 사랑하시였다.

나의 첫사랑은 음악입니다.

어느 정치가, 어느 위인의 생애에도 찾아볼수 없는 우리 장군님의 음악에 대한 이 특출한 사랑의 세계를 그이께서 지니고계신 비상한 음악적재능과 음악을 남달리 좋애하신 사실만으로는 다 설명할수 없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혁명가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에서 나오는 노래 《꽃피는 이 봄날에》를 감상하시였다.

…

봄날에는 우리 함께 씨를 뿌리고
가을이면 우리 함께 얼매 거두리
…

은은하게 울리는 서정적인 노래는 가극에 등장한 인물들의 내면세계를 깊이 펼치면서 마음의 금선을 끝없이 흔들었다.

사색에 잠기시여 노래를 들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시였다.

인간생활은 노래를 떼여놓고는 생각할수 없으며 노래를 띠난 혁명도 있을수 없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돌려보시면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노래에 대한 사랑은 생활에 대한 락관이고 조국과 혁명, 미래에 대한 락관이다. 수령님께서 뿌려놓으신 주체의 씨앗을 잘 가꾸어 삼천리강산에 알찬 얼매가 주렁지게 하고 온 세상에 주체의 향기가 차넘치게 하자는것이 나의 목표이고 드팀없는 신념이다. 그래서 나는 봄날에는 우리 함께 씨를 뿌리고 가을이면 우리 함께 얼매 거두리라고 한 2절 가사를 특히 좋아한다. …

음악에 대한 우리 장군님의 각별한 사랑은 이처럼 조국과 인민, 미래에 잇닿은 숭고한 사랑이였고 그이의 심원한 음악세계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원대한 리상, 불굴의 신념과 락관으로 충만된 한없이 고귀한 혁명세계였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유년시절에 벌써 《조국의 품》과 같은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창작하시여 조국의 품은 수령의 품이라는것을 인민들의 심장에 새겨주실수 있었고 불후의 고전적로작 《음악예술론》을 지술하시여 주체혁명위업에 복무하여야 할 음악의 진로를 환히 밝혀주실수 있은것이다.

우리 장군님께서 세계가극계의 일대 사변으로 되는 우리 식의 혁명적인 가극예술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계가 경탄하여마지 않는 20세기 문예부흥기를 열어놓으시여 사람들에게 참다운 미학관과 혁명정신을 심어주시였으며 인류를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실수 있은것도 음악이야말로 사회와 세계를 개변할수 있는 위력한 수단이라는것을 통찰하시였기때문이다.

수십년력사를 이어가며 비상한 생명력과 감화력을 변함없이 발휘하는 우리의 혁명가극들을 통해서도 혁명적예술의 새 경지를 펼치시여 앞으로도 영원히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정화시키고 참된 삶과 투쟁에로 추동할 고귀한 예술적재보를 수많이 마련하신 우리 장군님께서 얼마나 걸출한 위인이신가를 잘 알수 있다.

《인간생활에 음악이 없다면 그런 생활은 꽃이 없는 화단과 같다.》

《혁명적인 노래는 투쟁의 대오에 높이 울리는 진군가이며 시대의 행진곡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명언들은 오랜 세월 예술의 한 종류로 범상하게 일러오던 음악을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실현해나가기 위한 힘있는 무기로 간주하신 절세위인의 심원한 음악관을 절감하게 하고있다.

음악은 정치에 복무해야 하며 정치가 없는 음악은 향기가 없는 꽃과 같다는 우리 장군님의 투철한 음악관, 음악이 없는 정치를 심장이 없는 정치로 여기시고 혁명과 노래, 정치와 음악을 하나로 융합시켜나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특출한 령도실력은 어제도 오늘도 만사람의 격찬을 자아내고있다.

돌이켜보면 우리 장군님의 독창적인 음악중시사상으로 하여 이 땅에서는 음악예술의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였으며 노래와 더불어 인민대중의 정신력이 활화산처럼 분출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이 일어나는 희한한 현실이 펼쳐지게 되였다.

년대와 년대를 이어가며 이 땅에 높이 울린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백배의 힘과 용기가 되였고 적들이 미친듯이 감행하는 반공화국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는 위력한 무기가 되여 원쑤들을 공포에로 몰아넣었다.

인류사에 군사전략과 전법으로 적을 제압한 명장들은 있었어도 우리 장군님처럼 노래로 기적과 승리를 이룩한 명장은 없다. 총대와 함께 노래를 투쟁의 무기로 틀어쥔 나라를 정복할 힘은 세상에 없으며 혁명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싸우는 군대와 인민은 영원히 강하고 승리한다는것을 현실로 확증하신분이 바로 우리 장군님이시다.

우리의 천만군민은 혁명의 노래이자 혁명의 승리라는 진리의 정당성을 고난의 나날에 더 깊이 체험하였다.

가장 어렵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이 된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노래였다.

《우리는 맹세한다》, 《높이 들자 붉은기》와 같은 신념의 노래들은 온 나라를 피는불의 바다에서 산악같이 일떠세워 수령의 유훈관철전에로 힘차게 떠밀었고 《천만이 용폭탄되리라》와 같은 절사용위의 노래들은 천만군민이 사회주의수호전에 용약 떨쳐나서게 하였다.

원자탄보다 더 위력한 우리의 혁명군가들은 불바다와 피눈물의 일제사격과도 같이 원쑤들을 전률케 하였고 적들의 그 어떤 제재와 압살도 묵사발로 만드는 철의 의지와 필승의 기상으로 되였다.

준엄하고도 간고하였던 그 나날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높이 부른 노래들중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무척 사랑하신 노래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도 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함께 이 노래를 들으시며 깊은 추억에 잠기시였다. 그해에만도 여러번이나 감상하시며 온 나라 군대와 인민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주시는 노래였다.

조국해방전쟁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승리로 끝난 후 미제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을 두고 조선은 100년이 가도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고 떠벌이였다.

그런 참혹한 재더미에서 두번다시 나라를 일떠세우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 수령님따라 제힘으로 락원을 건설한 그 정신과 기상을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심어주시기 위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노래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하시였고 이 노래로 고난을 헤쳐나가는 인민의 발걸음에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였다.

우리 장군님의 손길아래 《내 나라의 푸른 하늘》과 같이 오래전에 창작된 수많은 노래들도 재형상되여 천만의 심장에 애국의 불을 더 세차게 달아주게 되였다.

수령결사옹위정신, 사회주의수호정신으로 일관된 혁명군가, 시대의 행진곡들을 힘차게 부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가장 숭고한 사상정신적높이에 오르게 되였으며 온 사회에는 혁명적정서와 랑만이 꽉 들어차게 되였다.

한 나라의 령도자로서 그처럼 음악으로 인민의 참된 삶과 밝은 미래를 위해 거대한 공헌을 하신 정치가를 력사는 알지 못하고있다.

하기에 세계의 신문, 통신, 방송들은 노래로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고 사회주의위업을 추동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앞을 다투어가며 전한것이다.

로씨아의 한 신문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음악을 정치와 가장 훌륭히 결합시키시여 조선에서 놀라운 현실을 펼쳐나가신다, 조선사람들은 경제생활에서는 없는것, 부족한것들이 많았으나 사상정신적인 면에서 누구보다도 강자였고 부자들이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썼다.

그들에게 있어서 음악은 때로는 수천수만의 총포를 대신하였고 때로는 수백수천만의 식량을 대신하였다. 이러한 앙양된 정신상태로 그 모진 고비를 영웅적으로 이겨낸 조선인민은 지금 번영하는 강성대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고있다. 그들은 인공지구위성을 쏘올리고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고 있다. 그이의 지도밑에 새롭게 창작되여 사람들의 심금을 틀어잡는 명곡들이 바로 인민들에게 보내는 그이의 《호소문》이였고 《시정연설》이였던것이다. 령도자가 훌륭한 음악으로 인민을 빛나는 미래에로 불러일으킨 실례는 세상에 없다. …

참으로 노래와 함께 얼마나 많은 창조와 건설의 기적이 조국력사에 빛나는것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영웅으로 값높은 삶을 꽃피웠던가.

조국방선의 초소들을 찾으시면 병사들의 소박한 노래도 들어주시고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무대를 마련해주시여 군관의 안해들이 녀성혁명가의 기개를 더 높이 발휘하도록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

방방곡곡 일터들을 찾으시여 근로자들의 공연을 보아주시면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고 영광을 안겨주신 우리 장군님!

혁명의 노래를 자양분으로 하여 우리 군대는 혁명의 주력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기둥으로 억세게 자라났고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그 모습을 세상에 떨치게 되였다.

음악으로 우리의 혼연일체를 더욱 튼튼히 다지시고 음악으로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수호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으며 혁명의 노래로 우리 인민을 영웅적인민으로 키우신 위대한 장군님은 참으로 희세의 정치가이시다.

혁명의 노래로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폭발시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진로를 열어나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은 천만년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김 준 희

당사상사업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3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력사적결론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였다. 하여 우리 당사상사업의 위대한 전환의 리정표가 마련되였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력사적인 2월19일로작을 당사업의 강령적지침으로 틀어쥐고 당사상사업에서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밀림으로써 그 생활력이 뚜렷이 과시되게 하고있다.

사상을 위력한 무기로 틀어쥐고

덕천시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의 지도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신것은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진로를 뚜렷이 명시하고 그 수행에로 천만군민을 총궐기시킨 정치적사변이였습니다.》

덕천시당위원회 일군들은 사상을 위력한 무기로 틀어쥐고 사상교양사업에 화력을 집중하여 시안의 전반사업에서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고있다.

충실성교양을 첫자리에 놓고

두해전 어느날 절세위인들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려있는 숲동공원혁명사적지를 돌아보는 시당책임일군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인민들에게 더 좋은 문화휴식터를 마련해주시기 위해 얼마나 마음쓰시였으면 지방의 자그마한 공원에까지 여러차례 찾아오시였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수록 그의 가슴속에는 숲동공원혁명사적지구역에 유원지를 잘 꾸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여야겠다는 새로운 결심이 굳어졌다. 이것은 그 혼자만이 아닌 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의지이기도 하였다. 숲동유원지가 건설된다는 소식을 듣고 시안의 1 500명의 녀맹원들까지 떨쳐나섰다.

시당위원회는 인민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뜨거운 충정심이 유원지건설에서 남김없이 발휘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야외물놀이장을 건설할 때였다.

150리나 떨어진 곳에서 모래와 자갈을 날라오는 일은 여간 힘들지 않았다. 게다가 장마로 대홍강물이 불어나 공사를 진척시키기 어렵게 되였다. 하지만 시당위원회일군들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구호문헌보존교양실개건공사를 한달동안에 끝내고 혁명사적물을 영구보존할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혁명의 만년재보를 빛내이는데 크게 이바지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백옥같은 충정을 믿었기때문이였다.

김용입시당위원장은 공사를 중단없이 내밀수 있는 혁신적인안을 내놓고 건설장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을 이끌어나갔다. 하여 착공의 첫삽을 박은지 열달후에는 숲동유원지가 인민들이 즐겨찾는 문화휴식터로 훌륭히 꾸려지게 되였다.

지난해 3월 위대한 수령님들의 모자이크영상작품앞 교양마당개건공사를 진행할 때에도 시당위원회는 공사 전과정이 근로자들의 심장마다에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더해주는 계기가 되도록 이끌었다. 짧은 기간에 교양마당이 개건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교양사업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시당위원회는 사상교양거점을 꾸려놓은데 맞게 그를 통한 충실성교양사업을 짜고들었다.

회고모임과 참관사업, 해설담화, 결의모임, 읽은책발표모임…

이런 사업은 온 시에 위대한 수령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들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하늘땅 끝까지 받들어나갈 충정의 의지가 팍 차넘치게 하였다.

시에서 대해 금수산태양궁전수목원에 400여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와 수백점의 관리도구들을 보내주고있는 사실, 시안의 여러명의 학생소년들이 김일성화전시회와 김정일화전시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실…

이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첫자리에 놓고 당사상사업을 진행한 결과 이룩된 성과이다.

당사상사업을 화선식으로

시당위원회는 당사상사업을 화선식으로 진행해나가는데서 주관부서인 선전선동부 일군들의 역할을 중시하였다.

특히 대중과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며 생활하고있는 당초급선전일군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다.

지난 1월 24일 청송협동농장의 포전에서 시안의 농업부문 선동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숲동모임을 조직한것도 이런 의도에서였다.

숲동모임을 계기로 시안의 농업부문의 선동원들은 5대교양자료들과 소형증폭기, 농업과학기술자료, 속보를 쌓수 있는 붓과 직관도구, 음향증폭식메가폰을 가지고 전원이 참가하는 선동함을 갖추었다. 선동함은 배낭에 넣어가지고 다닐수 있게 크기도 알맞춤하다. 선동원모두가 선동함을 구비함으로써 임의의 장소에서 선동사업을 기동적으로, 화선식으로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지난 1월 25일에 조직한 5호담당선전원들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강습도 보여주기형식으로 특색있게 운영하였다. 숲동모임과 강습이 끝난 후 자기가 속한 분조와 담당한 세대들에 들어가 선동원들과 5호담당선전원들이 벌려나가는 5대교양을 비롯한 여러가지 사상교양사업은 올해신년사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킨 위력한 정치사업이였다.

시당위원회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사상사업을 화선식으로 벌려나가도록 조건과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도 의도적으로 짜고들었다.

시당위원회일군, 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일군, 시당위원회 직외강연강사들과 다수확농장원들을 망라한 농업정책해설선전대들을 조직하고 이들의 역할을 높여 온 시에 당의 농업정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불바람이 일게 한 사실을 놓고 말할수 있다.

김성철시당부위원장은 밤을 새워가며 당의 농업정책과 농장원들이 알고싶어하는 문제가 반영된 해설자료를 만들었다.

해설자료를 가지고 시안의 협동농장의 작업반, 분조들에 나간 농업정책해설선전대원들은 해설선전을 화선식으로 벌려나갔다. 그 실효는 당면한 영농실천에서 나타났다. 올해 시안의 협동농장들에서 례년에 없이 많은 거름을 논밭에 낸 사실을 놓고 말할수 있다. 이 과정에 시는 농사와 산림복구전투에서 도적인 본보기단위의 영예를 떨치게 되였다.

시당위원회의 경험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첫자리에 놓고 당사상사업을 화선식으로 벌려나갈 때 모든 일에서 앞장설수 있다는것을 강조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손 영 희

사상의 힘을 백배, 천배로

◇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의 지도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세상에 엄숙히 선포하신 44돐이 된다. 뜻깊은 2월에 이날을 맞이하고있는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절세의 위인에 대한 경모의 정이 더욱 뜨겁게 넘쳐흐르고있다.

오천일 김일성종합대학 철학부 학부장은 《사상의 힘으로 혁명의 전환적국면을 열어온 우리 당의 력사에서 주체63(1974)년 2월 19일은 획기적인 리정표로 된다. 일심단결로 존엄높고 자력자강으로 전진하는 주체조선의 강위력한 힘은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를 위한 력사적투쟁속에서 마련된것이다.》고 토로하였다.

그렇다. 당사상전선에 먼저 불을 지피시고 사상사업의 화력을 비상히 강화하여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중시정치는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이 일어날수 있게 한 근본원천이였다.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진로를 뚜렷이 명시하고 그 수행에로 천만군민을 총궐기시킨 2월의 정치적사변이 가지는 력사적의의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부각되고있다.

◇ 사상이 모든것을 결정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시대를 개척하고 혁명을 전진시키는 힘은 인민대중에게 있으며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은 다름아닌 사상의 힘, 정신력입니다.》

우리 당은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을 앙양시켜 혁명의 승패와 진퇴를 판가리하는 시련의 고비를 혁명의 일대 고조기로 전환시켜왔다. 사상사업에서 전환이 일어날 때마다 큰 산을 하나씩 넘어온것이 조선혁명이다.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속에서 천리마대고조가 일어났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기치밑에 속도전의 불바람이 세차게 나래쳤다. 당의 령도밑에 창조된 혁명적군인정신, 강계정신과 더불어 강국건설의 창업한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사상의 힘에는 한계가 없다. 닭알에도 사상을 새우면 바위를 깨뜨릴수 있다는것이 우리 당이 주장하는 사상론이다.

지난해 검덕의 고경찬영웅소대가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3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할수 있은것은 더 높은 증산성과로 당의 권위를 옹호보위하겠다는 결사의 정신, 자력자강의 무쇠마치로 야만적인 제재책동에 미쳐날뛰는 적대세력들의 정수리를 후려갈기겠다는 민족적자존심으로 심장의 더운 피를 펄펄 끓이였기때문이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모든것을 제재할수 있어도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만은 절대로 꺾을수 없다. 위대한 사상정신력이 살아있는 한 사회주의조선은 끄떡없으며 혁명적대고조의 력사는 오늘도 래일도 줄기차게 흐를것이다.

◇ 사상의 힘,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는데 기적창조의 근본열쇠가 있다.

혁명적인 사상공세는 오늘의 전인민적인 총공세의 요구, 만리마시대의 요구이다. 우리는 사상의 포문을 열고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전선을 들었다 놓아야 한다.

오늘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당조직과 일군들은 참임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모든 일군들이 전투현장을 타고앉아 현장지도, 현장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박력있게 진행하여 생산자대중의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최대로 분출시키고있다. 지난해에 주철철생산을 그 전해에 비해 2.5배로 장성시킨 그 기세로 올해에 들어와 1월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황철로동계급의 영웅적위훈은 진공적인 화선식정치사업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모든 당선전일군들은 항일유격대나팔수가 될데 대한 당의 의도를 뼈에 쪼아박고 사상전의 된바람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 사상사업에서의 패배주의를 불사르고 전투장마다에서 대중의 심금을 울릴수 있는 참신하고 실효가 큰 정치사업방법들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적극 활용해나가야 한다. 전당이 선전원, 선동원이 되고 모든 일군들이 다 정치사업을 하여 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리면 1970년대의 약동하는 기상이 온 나라에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참신한 방법론과 그 실효

주체사상탑개선문관리소 초급당위원회에서

주체사상탑개선문관리소 초급당위원회가 종업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진행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사상사업을 자기 단위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참신하고 생기발랄하게 진행하는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언제인가 주체사상탑 전망대에 올랐던 한 외국인이 이곳 강사에게 뜻밖의 질문을 한적이 있었다.

대동강기슭에 떠있는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를 가리키며 무슨 배인가고 물었던것이다.

사실 그는 며칠전에 그 종합봉사선을 참관하였었다.

하여 그는 《무지개》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줄수 있었다.

우리 인민들에게 또 하나의 훌륭한 문화휴식장소를 마련해주시기 위해 몸소 종합봉사선건조를 발기하시고 설계도 지도해주시였으며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배이름까지 명명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에 대하여 감동깊게 해설해주었다.

강사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은 외국인들은 한성을 올리며 조선인민이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자기 수령을 절대적으로 숭배하며 믿고 따르는 리유를 알겠다고, 주체의 기치높이 수령과 인민이 하나로 굳게 뭉쳐 나아가는 조선의 전진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을것이라고 격조높이 토로하였다.

이를 계기로 김영길초급당위원장은 강사들에게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을 깊이 인식시켜주는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였다. 단위의 특성에 맞게 강사들이 그 어떤 물음에도 척척 대답할수 있게 준비시키기 위해 절세위인들의 위대성과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는 단위들을 참관하도록 할 결심을 굳히였다.

그와 관련한 조직사업이 진행되였다. 참관의 나날 강사들을 비롯한 모든 종업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더 깊이 알고 해설선전사업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자신들을 준비하게 되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주요명절때마다 진행하는 예술소품공연도 종업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의 한 고리로 전환시켰다.

지난 시기에는 예술소품공연이 기량이 높은 종업원들로 진행되여왔다. 그러다보니 기량이 낮은 종업원들은 공연준비사업을 무심히 대하는 편향이 제기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예술성보다도 사상성에 기본을 두고 대본을 작성하고 노래들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공연준비사업에 종업원모두가 참가하도록 하였다.

결국 모든 종업원들이 공연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과정에 혁명과업수행에 적극 떨쳐나설 새로운 각오를 가지게 되였다.

이밖에도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연혁소개실, 혁명사적교양실을 통한 교양사업을 참신하게 벌리는 등 종업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해나갔다.

이런 사상교양사업의 실효는 컸다.

누구나 위대한 수령님들의 체취가 어려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한다는 숭고한 자각을 깊이 새겨안고 맡은 혁명과업수행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강사들은 밤을 새워가며 위대성자료를 발취하고 외국어수준과 강의술을 높여나갔으며 종업원들은 맡은 설비관리와 원림록화사업에서 책임성을 높이 발휘해나갔다.

종업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서 옳은 방법론을 구현해나가는 문제는 이렇게 중요하였다.

본사기자 허 일 무

단위에 깃든 령도사적을 깊이 체득시켜

함주군 동봉협동농장 기계화작업반 당세포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세포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합니다.》

동봉땅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사적을 대중의 심장속에 깊이 체득시키는것, 이것은 함주군 동봉협동농장 기계화작업반 당세포가 사상교양사업에서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는 문제이다.

당세포는 동봉땅을 몸소 찾으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사적에 깃든 절세위인들의 령도사적에 대한 학습부터 진행하는것을 제도화하였다.

당세포는 실천투쟁속에서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사적을 빛내여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잘하고있다.

초급일군들이 실천적모범을 보였다.

지난해 모내기전투때 제5작업반에서 씨레치기하던 뜨락또르가 뜻밖의 고장으로 멈춰섰을 때였다. 당세포위원장 박기룡동무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이 뜨락또르에는 농장이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실현에서도 전국의 앞장에서 나가기를 바라신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어려있다고 하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운전수와 함께 밤을 새워가며 수리전투를 벌려 씨레치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작업반장 한정룡동무가 흘린 헌신의 땀은 또 얼마인지 모른다. 뜨락또르의 만가동을 위해 신의주로, 강원땅으로 신발창이 닳도록 뛰여다니는가 하면 무거운 부속품테낭을 지고 때여리 밤길에도 주저없이 나서는 그의 작업복은 늘 땀에 젖어있었다.

초급일군들의 헌신은 작업반원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사적을 빛내이기 위해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가를 깨우쳐주었다.

지난해 6월 제6작업반의 논풀이전투가 진행될 때에도 당세포에서는 한해에 세차례나 농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동해안농사의 본보기가 되라고 하신 간곡한 가르치심을 새겨주면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이에 고무된 운전수들은 밤낮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렸다. 그리하여 3일동안에 2정보의 밭을 논으로 풀고 뒤그루모내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혁신이 창조되였다.

이런 실례는 많다.

일찌기 농장을 찾으시여 이곳 농장원이 창안한 모뜨는기계를 몸소 보아주시며 잘 만들었다고 평가해주시고 전국에 일반화하도록 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사적을 통한 교양을 짜고들어 모내는기계와 모뜨는기계를 언제나 제것처럼 수리정비하고있는 사실, 뜨락또르운전수들이 높은 충정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기대를 눈동자와 같이 애호관리하게 하여 해마다 군적인 뜨락또르출동식에서 단연 앞장서도록 한 사실…

자기 고장에 깃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사적을 통한 교양을 짜고들어 맡은 과업수행에서 혁신을 이룩해나가는 이곳 당세포의 사업기풍은 얼마나 좋은가.

본사기자 김 향 란

당의 손길아래 기업소가 걸어온 자랑찬 로정을 가슴깊이 새겨가고있다.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거름생산에 박차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과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숙천청년과수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거름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과일생산의 성과가 지력을 높이는데 있다는것을 명심한 농장의 일군들은 거름생산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일군들은 작업반들에 내려가 거름원천을 모조리 찾아 밭에 조시켜 모든 작업반들에서 거름더미를 높이 쌓아가도록 하고있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작업반들에서는 매일 많은 거름을 생산하여 밭에 실어내고있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높은 로력적성과로 빛내일 열의안고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의 투쟁에 의하여 거름생산과 실어내기에서는 련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로농통신원 한 영 일

증산투쟁에로 생산자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회명목재가공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종업원들의 생활조건보장에 힘을 넣어

녕원군체신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녕원군체신소가 1년 남짓한 사이에 몰라보게 변모되였다.

2층짜리 사무청사가 번듯하게 개건되고있으며 구내가 규모있게 정리되였다. 그리고 우편통신보장용차고도 종전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꾸려졌다. 뿐만아니라 군에 2중전원체계를 구비한 현대적인 중계소와 이동통신기지가 건설되여 인민들에게 당의 목소리를 제때에 전달할수 있게 되였다.

이 성과의 밑바탕에는 체신현대화에 앞서 종업원들의 사업조건, 생활조건개선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뛴 이곳 일군들의 사업기풍, 투쟁기풍이 놓여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기준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전개하며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고락을 같이하면서 인민들의 마음속고충과 생활상애로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두해전 황철진동무가 군체신소 소장으로 사업을 시작하던 당시까지만 하여도 체신소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있었다. 이 문제를 놓고 고심하던 그는 체신설비부터 현대화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결심을 달리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체신소에서 중계소를 현대화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 일판을 벌리였을 때였다. 소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종업원들과 같이 온종일 가파로운 산발을 누비며 정확한 수신점을 찾기 위해 산판을 메주밟듯 하였다. 산판을 오르내리고 돌아와 잠자리에 누우면 어느새 꼼나라로 가버리였다.

어느날 또다시 산발을 누비던 소장은 한 종업원의 신발에 시선이 갔다. 신발이 터진것이였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내색없이 일에만 열중하였다. 그러는 그를 보며 일군들은 자기들의 사업에 빈구석이 있음을 자각했다. 일만 일이라고 했지 종업원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보장에 관심을 덜 돌린 자책감이 가슴속에 파고들었다.

설비현대화도 마땅히 그 주인인 대중이 떨쳐나서야 적극 추진될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일군들은 종업원들을 위한 사업에 모를 박았다. 사색을 거듭하는 과정에 이들은 산에서 자라는 뽕잎으로 누에치기를 하여 종업원들이 그 덕을 보게 하기로 하였다. 좋은 들었으나 이것이 큰 은을 내였다.

산길을 돌아오르다보니 신발이 오래가지 못하는 종업원들과 하루에도 남들보다 더 많은 길을 걷는 우편통신원들에게 신발이 보장되였다.

비록 큰것은 아니였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종업원들의 정신력이 폭발되여 체신현대화에서 혁신적인 성과들이 창조되였다.

한편 일군들은 보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종업원들의 생활조건개선에 더 큰 힘을 넣었다. 그들은 산간지대의 자연지리적특성에 맞게 염소를 많이 기를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결과 종업원들이 그 덕을 보게 된것은 물론 체신의 현대화에 필요한 설비들도 마련되였다.

이곳 일군들이 종업원들을 위해 마음써온 일들은 이뿐이 아니다. 땔감문제해결에도 각별한 관심을 돌렸다.

사실 사업상특성으로부터 산중의 초소를 지키는 근무성원들은 가정과 떨어져 생활하다보니 가정생활에 관심을 돌리지 못하고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일군들은 석탄을 해결하여 이들의 집에까지 날라다주었다.

이것이 그대로 사업성과로 이어졌다.

군에서 이동통신기지를 꾸릴 때에도 일군들은 사업에 앞서 그곳에서 일하게 될 근무성원들의 생활조건문제를 중시하였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어 그들이 마음놓고 일할수 있게 하였다.

한가지 사실만을 더 전하려고 한다.

이곳 일군들은 일터를 앞선 단위들 못지 않게 높은 수준에서 일신시키면서도 녀성들로 이루어진 교환작업반을 제일먼저 꾸려주고 겨울철에도 훈훈한 방에서 일할수 있게 하였다. 그때 작업반원들은 물론 온 종업원들이 좋아하였다. 하기에 작업반원들은 지난해 기술자들과 함께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현실에서 은을 내게 하였다.

올해 체신소가 내세운 목표는 높고 아름차다. 종업원들의 생활상편리를 최대한 도모할수 있게 합숙과 매기양어장, 남새온실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군들은 신심에 넘쳐있다.

이들은 종업원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개선에 품을 들인것만큼 체신현대화에서도 보다 큰 성과가 이룩된다는것을 지난 시기의 경험을 통하여 확신하였기에 이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특파기자 오 철 훈

집단의 전투력을 높이 떨쳐

강추위가 지속되던 지난 어느날 연안군 소정협동농장 제3작업반 1분조포전에는 이른아침부터 거름을 져나르는 사람이 있었다.

김선주분조장이였다.

사실 퇴직장으로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이런 강추위속에서 거름운반계획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걱정을 앞세웠던 그였다.

날씨가 풀릴 동안 거름운반을 그만둘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었다.

하지만 다음순간 그는 자신을 다잡았다.

분조농사를 책임진 내가 주춤거리면 그만큼 분조의 전진속도가 떠진다.

그는 분조원들과 함께 거름운반을 다그쳤다. 포전에는 새 거름무지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기어이 다수확을 거둘 각오를 안고 떨쳐나선 이들은 그날 거름운반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그날의 작업과정을 통하여 분조원들은 집단의 전투력을 다시금 힘있게 과시하였다.

본사기자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해갈 불같은 열의

증송의 기적소리 높이 울리며 힘차게 전진

남포철도분국 일군들과 로동계급

봉—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철도로동계급의 억세인 기상인양 맑고 푸른 조국의 하늘가에 증송의 기적소리가 힘있게 울려퍼진다.

나라의 동맥을 지켜간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사회주의대건설전투장마다에 활력을 부어주며 날에날마다 혁신적성과들을 이룩해나가는 전투원들의 대오속에는 남포철도분국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미더운 모습도 있다.

새해 첫달 수송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자랑을 안고 그들은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혁명정신으로 드세찬 공격전을 벌리고있다.

그들의 뜨거운 심장의 박동인양 힘차게 울리는 기적소리는 무엇을 전하는것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난관앞에 주저앉지 않고 승리에 자만하지 않으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것은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우리 인민의 고유한 혁명정신이며 투쟁기풍입니다.》

새해의 아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은 분국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가슴은 결사관철의 의지로 세차게 높뛰였다.

혁명적인 총공세의 돌파구를 인민경제의 선행관을 지켜선 우리가 열자!

자신만만한 기백과 불같은 열정을 안고 모두가 한마음한뜻이 되여 첫 보폭부터 활직하게 내짚었다. 분국안의 모든 단위들이 만리마대진군의 열풍속에서 기세좋게 전진했다.

지난 1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 인원과 자재, 설비들을 긴급수송하기 위한 전투임무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긴급수송을 원만히 보장하자면 화차들에 대한 수리를 결정적으로 앞당겨야 했다. 수리선에 화차들을 밀어넣는 남포객화차대의 로동자들을 찾아온 분국의 책임일군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화차수리를 24시간내에 끝낼수 있겠소?》

자재와 부속품들은 물론 애로되는것이 많은 조건에서 종전같으면 며칠은 실히 걸려야 할 수리과제를 단 하루동안에 수행한다는것이 얼마나 아름찬것인가를 책임일군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것이다.

《꼭 해내겠습니다.》

로동자들의 얼떤 목소리를 들으며 책임일군은 그들의 손을 딱 틀어잡았다.

공무소대원들이 유휴자재들을 수집하여 화차수리에 필요한 지구들을 생산하기 위한 전투를 벌리였고 재생소대원들이 용접봉들을 신속히 현장으로 날라왔다. 선반소대의 기대들이 기운차게 돌아가며 소재들을 가공했고 용접공들이 용접불꽃을 날리며 일손을 다그쳤다. 혁신의 열기로 온 작업장이 끓었다.

어떻게 하면 화차수리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앞당길수 있겠는가를 모색하면 대장 김정은동무는 용접을 하고있는 양영주동무를 발견하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몸이 불편하여 그가 치료를 받고있는줄로 알고있었던것이다. 손에서 용접가위를 빼앗으며 어서 들어가 치료를 받으라는 대장에게 양영주동무가 말하였다.

《지금 우리가 수리하는 화차들이 가야 할 전설장에서는 제나이또래의 청년들이 당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고있을것입니다. 저도 그들과 숨결을 같이하고싶습니다.》

말이 아니라 불을 토하는것 같았다. 우리 청년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삶의 지향은 얼마나 고결한것인가.

이런 마음들에 떠받들려 화차수리는 더욱 다그쳐졌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생산한 수정지레대, 수직지레대, 제동구두를 비롯한 부속품들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에 조립되였다. 객화차대에서는 화차수리를 제시간에 어김없이 해내였다.

남포역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화차들이 들어서자바람으로 제때에 짐들을 싣기 위한 전투를 벌리였다.

화물작업반원들은 짐는까비가 날리는 한겨울의 날씨도 아랑곳없이 옥중한 물전기재들과 설비들이 화차들에 정확히 실리도록 구슬땀을 흘리였다. 이들은 짐들을 안전하게 고정하는데 필요한 자재가 부족하면 자체로 보장하면서 낮에 밤을 이어 전투를 벌리였다.

긴장하게 벌어진 화차수리와 짐싣기전투는 성과적으로 결속되였다.

드디여 집중수송렬차가 기적소리를 울리며 떠나갔다. 경쾌한 기적소리를 울리며 달려가는 렬차를 바라보며 분국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적들의 맹추격속에서도 불비속을 뚫고 전선으로 식량과 탄약을 제때에 실어나르던 전화의 수송전사들의 투쟁정신, 자체의 힘과 기술로 《붉은기》호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내던 천리마시대 로동계급의 강의한 혁명정신으로 살며 투쟁해나가려는것이 그들의 심장마다에 간직된 불타는 맹세이다.

그들이 울려가는 힘찬 기적소리, 그것은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불굴의 정신력과 전투적위력을 남김없이 떨치며 만리마속도창조대전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려는 신념과 의지가 그대로 맥박치는 심장의 박동소리인것이다.

본사기자 조 경 철

쇠물보다 뜨거운 심장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용광로직장 로체2작업반원들

출선하는 화광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고있었다.

쇠물길을 따라 흘러가는 주홍빛쇠물을 바라보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용광로직장 로체2작업반원들의 얼굴마다에서는 만족한 미소가 피여올랐다. 1월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쁨이 가슴한가득 넘쳐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궐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여느때없이 난관도 많았던 새해 첫달전투의 나날이였다. 지난 1월초 로체2작업반원들앞에는 뜻하지 않게 난관이 조성되였다. 로의 밑부분에서 쇠물이 류출되여 용광로가 동음을 멈추었던것이다.

온 직장 아니 온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눈길이 멎어선 용광로에로 모아지고있을 때 용광로에로 서슴없이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었다.

로체2작업반원들이였다.

작업반장 홍순철동무와 당세포위원장 최경일동무의 뒤를 이어 작업반원들이 로안으로 드리운 사다리를 타고 내리고있었다. 사다리의 높이는 근 10m…

그 누구의 호소도, 불같은 토로도 없었다.

과연 그들의 가슴속에 무엇이 간직되여있기에 위험이 뒤따르는 불도가니에도 그처럼 서슴없이 뛰여드는것인가.

믿음이였다.

사실 그들속에는 지난날 본의아니게 나라앞에 죄를 지었던 사람도, 작업반에 정을 붙이지 못하여 애를 태우던 사람도, 환갑나이에 이른 사람도 있었다.

생활력도 나이도 각이하였지만 서로 돕고 이끌면서 한마음한뜻으로 발휘한 그들의 집단주의정신을 귀중히 여기여 어머니당에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고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최경일동무가 첫 토론을 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들의 가슴마다에 끓어번진것은 과연 무엇이였던가.

이보다 더 큰 영광, 더 큰 믿음이 또 어디에 있으랴.

우리 작업반 아니 황철의 주체철생산자들을 시대의 전렬에 세워준 당의 믿음에 높은 생산성과로 보답하자!

이런 의지를 안고 새해 첫 전투에 신심드높이 진입한 로체2작업반원들이였다.

신념이 투철하고 필승의 신심에 넘쳐있는 혁명가들의 전진은 그 어떤 난관도 멈춰세울수 없다.

로박에서와는 달리 로안에는 류출구주변이 상상외로 패여져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24시간은 실히 걸려야 한다던 로보수가 9시간만에 성과적으로 끝나 기세찬 동음을 울리게 되였다.

철의 도시의 밤하늘을 물들이는 붉은 쇠물, 우리는 그 불의 흐름에서 보았다.

당의 믿음을 생명으로 간직하고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의 총진군길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황철의 용해공들, 쇠물보다 뜨거운 심장을 지닌 열혈충신들의 참모습을.

본사기자 신 현 규

북방의 전야에 봄을 불러오며

만포시 고산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만포시 고산협동농장은 조국의 서북변 압록강기슭에 자리잡고있다. 강계시에서 백수십리 떨어진 이런 머나먼 곳에도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의 자욱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

지금으로부터 근 20년전 몸소 만포시 고산협동농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장의 자력갱생키지에 돌리시여 미생물비료생산정형을 료해하시면서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비료를 생산하여 밭에 치는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앞으로 비료를 많이 생산하라고 사랑과 믿음에 넘친 교시를 주시였다.

영광의 그날로부터 세월은 멀리도 흘렀다. 그러나 오늘도 이곳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람찬 삶의 자욱을 수놓아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장군님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북방의 칼바람이 뗌짜게 휘몰아치던 지난 1월초 어느날이였다. 한겨울의 궂은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까지 치는 생눈길을 헤치며 고산리의 산발과 골짜기들을 타고넘는 사람들이 있었다. 만포시 고산협동농장 일군들이였다.

어느덧 해가 중천에 떠오를무렵 잠시 산등성이의 너럭바위에 앉아 땀을 들이던 한 농장일군이 관리위원장 손광남동무에게 느닷없이 물었다.

《멀쩌 사흘째인데 괜히 고생을 사서하는것이 아닙니까.》

그 물음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한동안 주변산발을 주의깊게 살펴보던 관리위원장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비꼈다.

《지난해 소석회를 정보당 1t씩 낸 포전에서는 다른 포전보다 알곡소출이 며 높았다는걸 벌써 잊었소?

우리 농장포전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일이라면 이런 고생쯤은 사흘이 아니라 백날, 천날도 마다하지 않겠소.》

그날 농장일군들은 늦은저녁까지 구절골의 얼어붙은 땅을 한치한치 파낸 끝에 드디여 좋은 석회석산지를 찾아내고야말았다. 찾아낸 석회석을 로에서 구워보니 다른 고장에서 실어온 석회석으로 만든것보다 훨씬 좋은 소석회가 얻어졌다.

농장에서는 이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더 많은 유기질복합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전투에 떨쳐나섰다.

유기질복합비료생산에 들어가는 너탄깨기가 한창이던 어느날 저녁 하루일을 끝낸 농장원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뒤였다. 작업현장을 돌아보던 리당일군의 눈에 농산제7작업반쪽에서 타오르는 우등불빛이 비껴들었다.

서둘러 그곳으로 다가가보니 농장원 김원국동무와 안해가 인기척도 느끼지 못한체 너탄깨기에 열중하고있는것이 아닌가.

《날도 어두웠는데 이젠 그만하고 들어들가보오.》

자기들에게서 삶을 뺏다싶이 하며 등을 떠미는 리당일군에게 김원국동무는 어슴은 미소를 띠우며 이렇게 말했다.

《사실 저희 부부야 지난해농사실적이 그리 높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에 우린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올해농사에서는 기어이 작업반은 물론 농장적으로도 손꼽히는 다수확세대가 되는걸.…》

그날 그들부부는 하루 너탄깨기전투계획을 300%로 넘쳐 수행하고서야 퇴근길에 올랐다.

어찌 이들뿐이랴.

작업반장들인 김원일, 박길원동무와 리광숙, 홍상철동무를 비롯한 농장원모두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올해농사에서도 풍작훈을 부를 불타는 지향속에 너탄깨기와 거름생산전투에서 날마다 혁신과 위훈을 창조해나갔다.

하여 만포시 고산협동농장에서는 뜻깊은 2월의 봄명절을 맞으며 올해농사에 필요한 많은 량의 흙보산비료와 거름을 장만하는 성과를 이룩했다.

지금 이 농장에서는 논농사이자 불농사라는 관점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은정이 깃든 압록강기슭의 3단양수장을 더 훌륭히 개건보수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있다.

아직은 추운 계절이지만 이곳 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불같은 열정과 헌신속에 북방의 전야마다에는 봄노래가 울려퍼지고있다.

본사기자 리 남 호

전력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해나갈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우리는 인민의 복무자

문수궤도전차사업소 종업원들

얼마전 문수궤도전차사업소에서 수도력객운수국적인 보여주기사업이 있었다. 사업소에서 자체로 만든 궤도전차부속품들과 장치들이 인기를 끌었다.

그것들은 하나하나가 다 궤도전차의 실동률을 높이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는것이였다. 하지만 그보다도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지닌 결사관철의 정신과 멸사복무의 투쟁기풍이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의 마음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실천활동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전 사업소에 당일군으로 배치되여온 김일남동무는 생각이 많았다.

당시 사업소에서는 전동기수리에 절실히 필요한 절연물을 제때에 보장받지 못하여 궤도전차운행에서 적지 않은 지장을 받고있었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수도의 려객운수사업을 위해 얼마나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였던가. 우에서 대주기만을 앉아서 기다릴수 없다.)

그는 현장에 나가 자기의 안타까운 심정을 로동자들에게 그대로 터놓았다. 허물없이 무릎을 마주하고 려객운수사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와 인민을 위해 더 잘 복무할데 대한 당의 뜻을 이야기하는 당일군을 바라보는 로동자들의 생각은 깊었다. 이윽고 사업소에서 수십년간 일해오고있는 운영1대대의 리상호아바이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 힘으로 절연물을 만들어봅시다. 전세대 로동계급은 빈터나 다름없는 속에서 자체의 힘으로 자동차와 기관차까지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절연물을 못 만들겠습니까.》

그의 이 말에 모두가 호응해나섰다. 한번 해보자고, 기어이 성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자고 두팔을 걷고나섰다. 하여 이튿날 사업소에는 제대군인기능공들로 기술혁신조가 무어졌다.

하지만 절연물제작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제일 난문제로 나선것이 절연물제작에 필요한 광석을 찾아내는것이였다. 그들은 광석을 찾아 면길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던 어느날 개성시의 한 지역에 그 광석이 있다는것을 알게 된 그들의 걸음은 즉시 그곳으로 이어졌다. 그와 함께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한 여러곳을 다니면서 절연물제작의 세계적인 발전추세도 깊이있게 연구했다.

경험도 없고 그 분야의 기술자도 없었지만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하고야말 결심으로 헌신의 낮과 밤을 이어갔다.

그 나날 사업소의 일군들은 물론 기술혁신조성원들인 류천만, 렴중일동무의 안해들도 낮에는 차장일을 하고 밤에는 그들곁에서 후방사업도 하면서 고무해주었다. 해당 부문의 기술자들도 그들의 연구사업을 적극 도와나섰다.

드디여 성공의 날은 왔다. 첫 절연물시제품이 나왔던것이다. 그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절연물을 리용한 궤도전차의 시험운행을 끊임없이 진행하였다. 인민들이 리용하는 궤도전차에 쓰일 절연물에는 사소한 부족점도 있어서는 안된다는것이 그들의 하나같은 생각이였다. 마침내 어려 과학연구기관들에서 절연물의 질이 대단히 높다는 결론을 내렸을 때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가.

그로부터 얼마후 전국적인 과학기술축전과 발명 및 새 기술전시회에서 그들이 절연물제작과 관련하여 내놓은 새 기술은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되였다.

이런 성과에 토대하여 그들은 다른 부속품들도 자체로 련이어 제작해냈다. 자력갱생의 마치소리 드높은 생산현장에서 우리와 만난 류천만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하겠다는 각오만 든든하면 방도가 생기고 지혜도 샘솟습니다.》

어느 단위에서나 이들처럼 애국의 마음을 안고 떨쳐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고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위한 사업에서는 보다 큰 성과가 이룩될것이다.

본사기자 오 은 별

계속혁신에로 부르는 경제선동의 북소리

황해북도의 작가, 예술인들이 화선식경제선동으로 대중의 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고있다.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도작가동맹위원회 작가들이 시대의 벅찬 흐름에 몸을 잠그고 일터마다에서 경제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오늘의 총진군에서 맡고있는 사명감을 자각한 작가들은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 나가 높은 창작적열정으로 10여편의 시들을 창작발표하여 주체철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는 강철전사들을 새로운 혁신창조에로 추동하였다.

이들은 배성강청년5호발전소건설장,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등에서도 시 《계속혁신, 계속전진 앞으로》, 《미곡벌의 붉은기》를 비롯한 전투적이며 호소성이 강한 작품들로 경제선동활동을 즐기차게 이어나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의 구절마다에 담겨진 뜻을 새겨안은 도예술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도안의 주요전투장들에서 녀성독창 《천리마선구자의 노래》, 남성4중창 《자력갱생 기치높이 다시한번 대고조로》 등의 종목들을 펼치면서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울리였다.

사리원뜨락또르부속품공장을 비롯한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 달려나간 도예술선전대 배우들도 현장에서 일도 하면서 선동시 《사상의 포문을 열자》, 제담 《내 조국의 국력》을 비롯한 다양한 종목들로 근로자들의 열의를 북돋아주었다.

도안의 작가, 예술인들은 과감한 예술활동으로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조선중앙통신】

견인불발의 의지로 안아온 자랑찬 결실

배천군송배전소 일군들과 종업원들

배천군에 가면 군안의 일군들과 주민들로부터 일 잘하는 집단, 전투력이 강한 집단으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소장 김명호동무를 비롯한 군송배전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견인불발의 의지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하게 뚫고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대건설전투에로 불러일으키고 이끌어나가는 기관차가 되여야 합니다.》

오늘 군송배전소를 찾는 사람들은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혁명적인 투쟁기풍과 깐진 일솜씨를 두고 한결같이 감탄을 금치 못해한다.

훌륭히 꾸려진 자체의 수리기지와 시대의 요구에 맞게 그 면모가 일신된 청사건물, 번듯하게 조장된 마당과 종업원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는 튼튼한 후방기지들…

이 모든 성과들은 결코 쉽게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설 때 못해낼 일이 없고 극복 못할 요새란 없다.

바로 이런 신념과 의지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비약과 혁신의 한길로 힘차게 떠밀어준 힘의 원동력이였다.

어려해진까지만 하여도 군송배전소는 다른 단위들보다 뒤떨어져있었다.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은 물론 자체의 수리기지를 갖추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여러 측면에서 해결하여야 할 일감들이 많았다.

그때 김명호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송배전소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여기에는 그럼만 한 까닭이 있었다.

일군들은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단순히 꾸리기가 아니라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문제, 일터에 대한 애착문제로 보았던것이다.

자기 일터를 일신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모든 종업원들의 사상정신상태와 일본새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자는것이 소장을 비롯한 일군들의 생각이였다.

김명호동무가 송배전소건물을 개건하자는 안을 내놓았을 때 종업원들은 놀라와하면서도 선뜻 결심을 못하고있었다. 자기 힘에 대한 신심이 부족한데서 오는 현상이였다.

김명호동무는 망설이는 종업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남의 손을 바라보면 언제 가도 일떠설수 없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현지지도단위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처럼 우리의 손으로 일터를 변모시킵시다.》

김명호동무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조직사업을 짜고들고 종업원들을 불러일으켰다.

청사개건전투장은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들끓었다.

대오의 앞장에는 언제나 김명호동무가 서있었다.

그가 언제 일어나고 언제 잠자리에 눕는지 누구도 몰랐다. 낮에는 로동자들과 함께 어울려 작업하느라 현장에서 살다싶이 하였고 밤에는 부족되는 자재를 구해오기 위해 수백리 먼길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언제나 제기와 정열에 넘쳐 앞재를 메고 달리는 그의 모습에 고무된 로동자, 기술자들은 소장과 발걸음을 맞추어 일자리를 록록 냈다. 대중의 정신력이 발동되니 지난 시기에 엄두도 못내던 일들이 척척 진척되였다.

종업원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김명호동무는 매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면서 그들을 고무해주었다.

그 나날에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지붕공사에 필요한 많은 세멘트기와도 자체로 찍었으며 어렵게만 생각했던 구내포장도 1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보란듯이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과정에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견인불발의 의지로 떨쳐나설 때 극복 못할 난관이 없으며 집단의 풍천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것을 깊이 새겨안게 되였다.

한마음한뜻이 되여 떨쳐나선 종업원들의 모습에 고무된 김명호동무는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대중을 불러일으켰다.

몇해전 군안의 배전선로들을 교체할 때였다.

불비한 배전선로들을 교체하자면 자재는 물론 어지간히 품도 많이 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방대한 일감앞에 머리를 저었다.

하지만 소장 김명호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맞받아 뚫고나가면서 전기선과 전주, 애자 등 필요한 자재들을 원만히 해결하였으며 몇달은 실히 걸려야 한다고 하던 배전선로공사를 단 한달동안에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결국 많은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군안의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서 요구하는 전력을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또한 일군들은 해당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전력의 공급과 분배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할수 있는 앞선 전력관리운영체계를 받아들여 전력의 도중손실을 더 줄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일군들은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세우는 사업에도 계속 큰 힘을 넣었다.

많은 세멘트와 골재, 건구류들이 마련되는 속에 군송배전소에서는 건물내부도 새맛이 나게 개건하였으며 과학기술보급실도 번듯하게 꾸려놓았다.

이 나날에 군송배전소의 면모는 안팎으로 더욱 일신되게 되였다.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도 분배있게 내밀었다.

최근에만도 군송배전소에는 태양열온실과 미꾸라지서식장이 일떠서고 돼지우리를 비롯한 축산기지들이 더욱 활성화되여 종업원들의 식생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게 되였다.

그뿐이 아니다.

대중의 집체적지혜와 힘이 합쳐지는 가운데 송배전소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수리기지를 꾸리기 위한 기발한 착상들이 쏟아져나왔다. 마침내 훌륭한 수리기지가 마련되고 제기되는 여러가지 부분품들을 자체로 보장하여 해마다 국가에 많은 리익을 주게 되였다.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이곳 송배전소에서는 지난 시기에는 엄두도 내지 못하던 송전선대보수공사도 얼마든지 자체의 힘으로 척척 하는 힘있는 단위로 자라났다.

하지만 순간의 답보도 모르는 이곳 종업원들이다.

군송배전소에서는 올해에도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 관철에로 종업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새해의 총돌격전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빛내일 불같은 열의를 안고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박 철

독자의 편지

친딸, 친손녀같습니다

저를 로병할머니라고 정답아 부르며 건강과 생활을 육친의 정으로 돌보아주고있는 고마운 사람들가운데는 어려해진부터 저를 친어머니, 친할머니처럼 따르는 모녀도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모란봉구역 성북동 71인민반에서 살고있는 한형금녀성과 그의 딸 손금령학생입니다.

그들모녀가 별로 해놓은 일도 없는 저를 어머니, 할머니라 부르며 스스럼없이 집문턱을 넘어 곧 에 안기고 성의껏 준비한 갖가지 건강식품과 보약들도 안겨주며 건강을 돌보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눈물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후에 알게 되였지만 한형금녀성은 나라를 위해 좋은 일도 많이 한 훌륭한 녀성이였습니다.

그 어머니에 그 딸이라고 모란봉구역 성북소학교 학생인 금령이가 학습과 조직생활에서 모범을 보이고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도 스스로 찾아한 자랑을 안고왔을 때에는 또 얼마나 대견하였겠습니까.

금령이의 이런 성장에는 딸자식을 나라의 훌륭한 역군으로 키우려는 형금녀성의 고결한 마음씨가 자양분이 되고 뿌리가 되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생일을 맞는 저를 또 다시 찾아온 한형금녀성은 저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것이였습니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고 찾으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꿋한 충정의 마음을 바쳐온 로병할머니처럼 저희들도 순결한 량심으로 사회와 집단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니 문에 넘치는 감사까지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이 사무쳐와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정녕 깊은 정과 의리, 고결한 충정의 마음을 안고 사는 이들 모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온 나라 인민을 아름답고 화목한 대가정의 식솔로 안아키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에 솟구치는 감사의 마음을 금할수 없습니다.

서성구역 중신동 60인민반 리 영 희

태양의 꽃바다는 주체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부른다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 기어이 꽃피우리

제22차 김정일화축전장을 돌아보고

세월의 흐름속에 많은것이 잊혀지고 변한다지만 불멸의 꽃 김정일화는 해가 갈수록 더욱 아름답게 피여나 우리 인민의 투쟁과 생활을 뜨겁게 축복해주고있다.

이것을 우리는 수만상이나 되는 김정일화가 붉은 꽃바다를 이룬 제22차 김정일화축전장을 돌아보며 다시금 절감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모시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 장군님과 우리 인민들의 끊을수 없는 혈연의 정이 영원히 이어지게 하여야 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참관자들과 함께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의 중앙전시홀에 들어서니 아름다운 화원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거룩한 영상이 안겨왔다.

불멸의 꽃으로 형상한 대형꽃바구니를 중심으로 《주체조선의 영원한 태양》이라는 글발을 새기고 1 000여상의 김정일화로 당기를 형상한 인민무력성과 외무성전시대의 밑부분은 갖가지 꽃들이 조화를 이루고있어 정교한 미술작품도 무색케 할 아름답고도 심세한 화폭을 펼쳐놓고있었다.

2월과 더불어 인민의 마음속에 넘쳐흐르는 그리움의 세계를 훌륭히 반영한 전시대에서 이윽토록 발걸음을 멈추었던 우리는 참관자들의 물결을 따라 2층으로 향하였다.

2층에 올라서자마자 참관자들은 저도모르게 탄성을 터쳐올렸다. 볼수록 아름답고 황홀한 꽃바다가 온넋을 사로잡았던것이다.

봄의 혼향이 온몸을 감싸안는 속에 《2월은 봄입니다》의 노래가 은은히 들려왔다.

《위대한 강국으로 영광떨치는 주체조선에 만발한 김정일화》라는 축전의 주제를 부각시키며 《만고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혁명가》라는 글발들이 환하게 안겨왔는데 이것만 보아도 이번 축전의 사상적대를 잘 알수 있었다.

이 글발들밑에 위치한 대외경제성, 경흥지도국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전시대들은 아름답게 만발한 불멸의 꽃속에 정일봉과 백두산밀영교향악, 금수산태양궁전을 품위있게 형상하여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의 열기를 잘 반영하고있었다.

정면에 자리잡고있는 조선인민군 김성덕소속부대전시대도 참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1 000여상의 김정일화로 당기를 형상한 전시대에는 어버이장군님의 태양상을 중심으로 《희세의 천출명장》이라는 글발이 새겨져있고 당마크가 형상되여있었는데 수평걸사용위의 제일선에 서있는 인민군장병들의 신념과 의지가 력력히 맥박치고있었다.

이어 사람들의 눈길을 특별히 끌어당긴것은 비전향장기수들, 해외동포들의 지성이 뜨겁게 어려있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전시대였다.

수백상의 불멸의 꽃으로 조선지도를 특색있게 형상하여 조국통일위업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과 애국애족의 의지를 보여주는 전시대앞에서 참관자들은 오래도록 발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그런가하면 총련중앙상임위원회전시대를 바라보며 승업한 감정에 휩싸여있는 참관자들에게 총련의 해설원이 한없는 그리움에 젖어 전시대에 깃든 이야기를 펼치고있었다.

그의 해설을 들으며 사람들은 이역만리에서도 태양만을 따르는 총련동포들의 일편단심을 더욱 뜨겁게 느끼였다.

축전장의 어느 전시대에서나 자기의 특색을 잘 살리면서 태양의 꽃을 조형예술적으로 전시하여 어버이장군님께서 총정의 꽃향기속에 영생하신다는 진리를 보여주고있었다.

그 뜻깊은 전시대들앞에서 저저마다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심히 안겨오지 않았다.

아름다운 꽃바다를 배경으로 남기는 사진이 아마도 그들에게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총정의 마음을 비추어보는 한생의 거울로 될것이라는 생각이 갈마들었다.

인산인해를 이룬 사람들속에 묻히여 참관을 이어가던 우리는 걸음을 멈추었다. 외국의 벗들의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이 어린 전시대들도 있었던것이다.

《불멸의 꽃》, 《명명 30돐》이라는 글발을 랑옆에 새기고 세계지도가 부각된 꽃바구니를 형상한 대외문화련락위원회전시대에는 지난 시기의 축전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의 수많은 단체들의 명의로 된 김정일화가 전시되여있었다.

조선과의 친선협회 뽈스까지부, 타이조선친선협회, 스리랑카인민조선친선협회…

2월의 하늘가에 리저오르는 축포며 유명한 마식령스키장과 현대적인 비행장을 형상하고 다채로운 꽃들로 장식된 국가관광총국전시대도 마찬가지였다.

도이췰란드 평양려행사, 영국고려려행사, 말레이시아조선관광회사 등 많은 단체의 명의로 된 불멸의 꽃들이 전시되여있었다.

마치 온 세계가 축전장에 모인것 같았다.

뜨거운 위인칭송의 열기가 넘쳐흐르는 전시대앞에서 우리는 국가관광총국 부원 백광철동무를 만났다.

《이번 축전을 준비하면서 총국안의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어버이장군님의 위대성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책동이 아무리 악랄해도 외국의 벗들이 끊임없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다는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절세위인들을 흠모하고 따르는 세계인민들의 마음은 변함없음을 확신할수 있었다.

진정 불멸의 꽃축전은 조선의 꽃축전인 동시에 전세계적인 축전임을 다시금 새겨안으며 우리는 3층으로 올라갔다.

좌우측에 새겨진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라는 구호들만 보아도 3층의 전시대들이 안고있는 의미를 한눈에 알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부강조국건설념원을 기어이 실현하고야말 천만군민의 신념의 분출이런듯 불멸의 꽃들이 송이마다 붉게 타고있었다.

온 나라 청년전위들의 충정의 마음이 피워올린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중앙위원회전시대도 그러했고 불멸의 꽃으로 당마크를 특색있게 형상한 금강지도국전시대, 체육부문 일군들과 온 나라 체육인들의 명세가 비낀 체육성과 조선태권도위원회전시대 그리고 화학공업성, 국토환경보호성전시대도 볼수록 뜻이 깊었다.

금강지도국전시대앞에서 어려 청년들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우리의 귀전에 들려왔다.

《김정일화로 당마크를 형상했구만.》

《올해엔 당기와 당마크를 형상한 전시대가 특별히 많구만.》

옳은 말이였다.

환희와 격정속에 축전장을 돌아볼수록 어버이장군님의 념원대로 우리 조국의 국력과 전략적지위를 비상히 높은 경지에 올려세운 위대한 당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을 폐부로 느끼게 되는것이였다.

자식들을 데리고 축전장을 찾은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한 로동자는 김정일화축전장을 찾을 때마다 받는 충격이 새롭다고, 올해가 공화국창건일흔돐이 되는 해인데 위대한 조선로동당이 있어 우리 조국의 오늘과 같은 현실과 찬란한 미래가 있다는것을 더욱 절감하게 되였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진정 어느 전시대에서나,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설 맹세 또한 하나와 같았다.

뜻깊은 2월에 펼쳐진 김정일화축전장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천만군민의 신념이야말로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변함없는 사회주의조선의 승결이라는것을 가슴벅차게 안아볼수 있었다.

그렇다.

단 한가지 꽃으로 아름다움과 숭고함의 극치를 반영하고 한 나라, 한 민족을 넘어 세계인민들의 다함없는 위인칭송과 축원의 세계를 이루며 관상이나 향유의 멋을 초월하여 인간의 심장을 뛰게 하는 태양의 꽃축전은 우리 조국의 크나큰 영광이고 인류의 자랑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축전장을 나서는 우리의 귀전에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의 노래가 들려왔다.

여기 축전장에서 하나의 혁명대학을 나온것처럼 신념이 백배해진 참관자들의 불타는 충정의 마음과 맹세를 담아.

본사기자 강효심

붉은 기폭과 맹세

백전백승 조선로동당기의 붉은 기폭이 수백상의 아름다운 태양의 꽃으로 형상되고 그옆에 인민사랑, 인민중시라는 글발이 새겨져있는 경공업성전시대, 여기에도 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었다.

축전을 앞두고 경공업성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정성다해 키우는 한편 전시대의 형성도안을 준비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돌리였다고 한다.

일군들과 정무원들은 저저마다 심혈을 기울여 전시대형성도안을 그려가지고 모여앉군 하였다. 그렇게 하기를 그 몇번…

마침내 하나의 도안을 마주한 모두가 무릎을 치며 이겐 됐다고 환성을 올렸다. 성안의 일군들과 정무원들의 지지를 받은 그 도안이 바로 당기의 붉은 기폭을 형상한 전시대도안이였다.

축전장에서 우리와 만난 경공업성의 일군은 그러한 형상에 담겨진 뜻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였다.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하는 올해에 다름아닌 우리 경공업성이 승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당정책관철의 맨앞장에서 내달리자는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우리는 생각하였다. 경공업성전시대의 꽃들이 그처럼 붉은것은 그 맹세도 가득히 담겨져있어서가 아니겠는가고.

꽃과 열매

활짝 핀 200여상의 태양의 꽃으로 당기를 형상한 화폭의 중심에 당을 따라 천만리라는 신념의 글발을 새긴 농업성전시대앞에서 참관자들은 연방 감탄을 터치였다.

우리에게 성의 한 일군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난해 성당조직에서는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을 최상의 수준에서 새로 일떠세워 보다 훌륭한 재배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건설전투는 가장 선차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추진되였으며 성안의 모든 일군들과 정무원들이 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종전보다 더 현대적인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이 일떠서게 되였다.

새롭게 꾸려진 온실에서 붉고붉은 태양의 꽃들이 피여난 날 성안의 모든 부서가 명절날처럼 흥성이였다.

이렇게 태양의 꽃들을 활짝 피워 축전장을 아름답게 장식한것처럼 농업성의 일군들은 올해에도 조국의 대지우에 풍만한 열매를 한껏 펼쳐놓을 결심을 안고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성룡

불멸의 꽃에 어린 충정의 마음

수필

전시대앞에서

타오르는 불길처럼 붉고붉은 꽃, 열정의 미소를 머금고 피여난 김정일화를 바라보느라니 제22차 김정일화축전에 200여상의 불멸의 꽃을 피워 전시한 자랑을 안고있는 김일성종합대학의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 연구사 리춘희동무의 목소리가 되새겨진다.

《…우리 온실에서는 대학안의 전체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 학생들의 충정을 담아 해마다 2월이면 수백상의 김정일화가 활짝 피여납니다. 그래서인지 김정일화가 피여 봄을 불러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봄빛을 받아 남먼저 피여나는 꽃들도 많다.

그러나 그리움을 안고 사는 뜨거운 심장들에 그 뿌리를 내려 한겨울에도 망울이 부풀고 흰눈과 어울려 활짝 피여나 봄을 부르는 꽃은 오직 김정일화뿐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뿌려놓으신 귀중한 씨앗들을 잘 가꾸어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야 합니다.》

대후의 세계를 펼친 태양의 꽃을 보면 볼수록 나의 가슴속에 뜨겁게 안겨온다.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의 노래를 부르시며 고난의 길을 앞장서 헤치신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이.

오늘도 우리 인민은 잊지 못하고있다. 력사에 류례없는 고난의 행군길과 그 진두에서 야전복차림을 날리시며 눈보라강행군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눈물겨운 헌신의 장정을.

사회주의조선의 승결이 꺼지기를 바라는 제국주의자들의 암살의 광풍이 휘몰아치고 자연의 광란이 우리의 보금자리를 사정없이 쓸어가던 그 나날들에 닥쳐온 겨울은 류달리도 엄혹하였다.

남들같으면 얼백번도 쓰러졌을 그 길에서 우리 인민이 키여 이 최후의 승리자로 존엄떨칠수 있은것은 이 땅에 반드시 오고야말 봄빛을 한몸에 안으신분이 계시였기때문이다.

한겨울의 칼바람속에 식량이 아니라 거름짐을 지고 나선 자강도인민들의 미더운 모습을 보실 때 우리 장군님의 심중에 불타오른 념원은 무엇이였던가.

그것은 시련앞에 굴함이 없이 래일을 믿고 당을 따라 변함없이 한길을 가는 우리 인민에게 반드시 창창한 봄날을 안겨주시려는것이였다.

하기에 고난의 그 나날 우리 장군님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의 노래를 부르시며 제국주의자들의 암살의 동토대를 부실 보검을 벼리시고 행복의 씨앗을 자래울 리전을 다지신것이 아니였던가.

진정 강설이 천지를 덮고 동토대의 눈보라가 이 땅의 모든것을 휩쓸어도 그이의 심장속에는 봄이 있었고 인민의 심장속에는 그이께서 계시였다.

이렇듯 인민을 위하시면 불타는 열정, 력사의 온갖 광풍을 쳐갈기며 통장훈을 부르시던 때 땅,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는 노래를 부르시던 그이의 애국의 뜻이 어린 꽃이여서 김정일화의 꽃잎은 그리도 붉고 잎새는 그리도 푸른것이며 흰눈덮인 2월의 강산에 봄을 부르며 그렇듯 아름답게 피여나는것이니라. 한생을 인민위해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환한 미소와도 같은 꽃송이.

정녕 그 태양의 꽃이 불러오는 봄은 무엇이던가.

그것은 인민이 만복을 누리는 천하제일강국이다.

고난의 눈보라속에 고이 지켜온 행복의 씨앗들이 이 땅에 움터나 인민들과 아이들의 웃음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 조선로동당만세소리가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끝없이 울려퍼지는 우리 조국이다.

그렇다.

2월의 조국땅에 펼쳐진 불멸의 꽃바다에서 우리 인민은 강국의 새봄을 안아본다.

우리 장군님의 태양의 미소처럼 붉고붉은 김정일화가 불러오는 최후승리의 봄을…

김수정

축전장에 메아리치는 신념의 목소리

국가과학원 과학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국가과학원의 모든 과학자들과 일군들이 높은 리상과 꿈을 안고 눈부신 과학연구성과로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아름답게 활짝 피여난 수백상의 김정일화로 형상한 지구, 그 중심에는 눈부신 태양의 빛발아래 2월의 정기가 넘쳐흐르는 백두산밀영교향악과 정일봉이 훌륭히 형상되여있어 국가과학원전시대를 돌아보는 참관자들은 선뜻 발걸음을 뗄줄 몰랐다.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고계신다는것을 직관적으로 뚜렷하게 보여주는 전시대는 정말 훌륭했다.

많은 흰색국화들로 장식된 하얀 원형띠가 위성궤도를 형상한것인가고 묻는 우리에게 국가과학원 부원인 최창남동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주체의 궤도를 따라 단 한치의 전차도 없이 돌며 태양만을 따르려는 우리 국가과학원 일군들과 과학자들의 억척불변의 신념, 과학을 해도 오직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발아래서만 하려는 주체조선의 과학자들의 드팀없는 의지를 담아 형상한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갖가지 보조화초들로 장식되여있는 전시대의 바닥중심에 형상한 원자모형에도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과학기술로 받들어나가는 믿음직한 전초병이 되려는 과학자들의 맹세가 비꼈었다고 하였다.

만복화와 나비꽃을 비롯한 특색있는 보조화초들을 이번 전시대에 내놓게 된데도 사연이 있었다. 그에 대하여 국가과학원 평양화초연구소의 녀성과학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또 얼마나 감동적인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만복화》라고 이름달아주신 꽃을 활짝 피워 내놓은것은 우리 인민이 대대손손 누려갈 천만가지 행복을 바로 과학기술로 안아오려는 국가과학원 일군들과 과학자들의 결심을 말해주는것이라고, 여러가지 색갈의 나비꽃에는 우리 나라에 없는 화초종자를 다른 나라들에서 들여다가 온 나라에 퍼칠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더욱 철저히 관철해나갈 화초연구부문 과학자들의 불타는 맹세도 어려있다고 하는 녀성과학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참관자들 누구나 격정의 파도로 가슴설레였다.

잠시후 국가과학원전시대로는 한 로과학자가 자식들과 함께 찾아왔다.

우리 나라에 우량한 염소품종을 퍼치는 과학연구사업에서 공로가 큰 생물공학분원 연구사라고 곁에서 누군가가 귀띔해주었다.

일흔살이 넘은 김순연구사는 생물공학분원 줄기세포연구소 연구사로 일하는 아들에게 전시대를 가리키며 이다음 손자가 태여나면 우리 나라에 자력자강의 보물들이 더 늘어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 과학자로 키우자고 하는것이였다.

전시대를 돌아보면서도 그리고 축전장을 참관하는 과학자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국가과학원의 전체 일군들과 과학자들의 심장의 목소리를 다시금 절감할수 있었다.

미더운 과학자대군이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열렬히 지지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고있기에 우리 당이 강한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겠습니다!

국가과학원을 자력자강의 고향집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그 사랑,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내 나라의 방방곡곡에 자력자강의 보물들이 넘쳐나게 하겠습니다!

높은 리상과 꿈을 안고 눈부신 과학연구성과로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는 보람찬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과학기술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을 누리에 빛내여갈 과학자들의 신념의 맹세가 불멸의 꽃축전장에 끝없이 메아리치는듯싶었다.

글 본사기자 백성근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천하제일명화가 더욱 만발하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모시며 수령영생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순결한 량심과 도덕의리심을 가지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불멸의 꽃 김정일화명명 30돐을 맞으며 진행된 김정일화에 관한 전국과학연구토론회에 참가했던 꽃재배기술자들도 제22차 김정일화축전장에 자기들이 피운 천하제일명화를 전시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그들을 만나보았다.

우리가 처음 만난 재배기술자는 국가선물판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 기사 전영옥동무였다.

그가 연구한 방법은 불멸의 꽃재배에 몇가지 유기부산물을 리용하는 방법이였다.

꽃재배에 필요한 비료를 절약하면서도 꽃키우기과정에 나오던 유기부산물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꽃일도 커지게 하고 꽃대도 실하게 하며 꽃의 생신도를 더 오래 유지하게 하는 방법을 내놓기 위해 그는 근 20년간 꾸준히 연구사업을 해왔다고 한다.

룡남산의 딸답게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기 위한 사업에 깨끗한 량심을 바쳐온 그는 앞으로 불멸의 꽃재배에 필요한 새로운 식물성농약을 만들어낼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여있었다.

우리는 룡라도지도국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의 김명희기사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야외재배조건에서 김정일화의 어린 모를 순화시키고 생육기일을 종전보다 한달이상 앞당기면서도 꽃을 더 크고 아름답게 피울수 있게 하는 연구성과를 내놓은 그는 예순살이 지난 재배기술자였다.

1차부터 22차까지의 불멸의 꽃축전에 다 참가한 그는 어떻게 하면 야외조건에서 불멸의 꽃의 생육기일을 종전보다 앞당길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사색과 탐구를 심화시켰으며 마침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낼수 있었다.

사실 그는 식물학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였다.

그러나 그는 온실조건이 아닌 자연적인 생태환경에서 불멸의 꽃을 더 빨리 피우고싶은 마음으로 자기 단위 일군들의 방조밑에 야외재배장까지 꾸려놓고 수년전의 기상관측자료들까지 연구분석하며 심혈을 기울였다.

불멸의 꽃 김정일화의 과학기술적재배를 위해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친 사람들속에는 강원도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의 일군도 있고 평양철도국의 기술자도 있었다.

이들만이 아니였다.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 일군의 말에 의하면 불멸의 꽃을 더 빨리, 더 싱싱하게 피워 김정일화축전장을 황홀하게 장식하기 위해 밑거름이 된 과학자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들중에는 꽃의 생신도보존에 적합한 낮은 온도구간을 확정하고 김정일화를 더 크게 그리고 더 오래 피울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과학자도 있고 김정일화의 조직배양방법의 개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과학자도 있었다.

뿐만아니라 꽃의 생육에 보다 좋은 효과를 주는 색테드등에 의한 보충조명방법을 연구한 과학자도 있고 꽃재배과정에 발생하는 여러가지 병해충을 없애는 식물성농약을 개발한 과학자도 있었다.

광명성절을 뜻깊게 경축하며 성황리에 진행되는 제22차 김정일화축전장에서 우리는 그들모두를 다 만나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묵묵히 불멸의 꽃의 과학기술적재배에 한생을 바쳐온 이런 참된 과학자, 기술자들이 있어 태양칭송의 꽃바다가 더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였고 온 나라 강산에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위인흠모의 대하가 더욱 뜨겁게 굽이쳐흐르게 되였다고 생각하니 후더워오르는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세계제일의 명화가 더욱 만발하게 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태양흠모의 꽃바다와 더불어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이렇듯 순결한 마음들에 떠받들려 앞으로도 위인칭송의 꽃축전은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더욱 의의깊게 장식할것이다.

본사기자

만민의 흠모심을 담아

대외전람총국전시대를 바라보는 참관자들은 연해연방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전시대의 중심에 활활 타오르는듯 한 주체사상탑의 붉은 불화의 훌륭한 형상은 마치도 온 축전장을 위인흠모의 열기로 세차게 달구어주는듯 하였다. 그리고 전시대에는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의 벗들이 불멸의 꽃을 안고있는 모습과 세계 여러 나라의 저명한 인사들이 지난 시기의 김정일화축전장들을 돌아보며 감동을 금치 못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여러장의 사진들도 전시되여있었다.

부원 리철원동무는 《우리 전시대를 찾는 참관자들마다 대동강반의 주체사상탑을 보는것 같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을 주의깊게 바라보군 합니다.》라고 격정에 겨워 이야기하였다. 하다면 참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전시대의 형상에는 어떤 사연이 깃들어있는것인가.

올해의 2월 16일은 대외전람총국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있어서 창립 50돐을 맞이하는것으로 하여 더욱 뜻깊은 날이다. 더우기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되는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미술전람회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던 나날에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 가는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흠모의 마음을 직접 체험한 총국의 일군들인것으로 하여 꽃재배로부터 전시대형상에 이르기까지 이번 김정일화축전준비에 특별히 많은 품을 들이였다.

꽃의 생육상태를 수시로 알아보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주는것을 어길수 없는 일과로 여겨온 총국의 책임일군들, 하루가 멀다하게 온실로 찾아와 관리원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던 그들이였다.

누리를 밝게 비치는 주체의 빛발을 형상하고 김정일화에 대후된 외국인들의 모습을 전시대에 담아 인류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자는것이 그들의 심장의 호소이고 드팀없는 의지였다.

정녕 붉게붉게 피여난 태양의 꽃은 단순히 토양속에 뿌리를 내리고 망울을 터친것이 아니였다.

땅속에 뿌리내리는 자연의 식물은 계절에 따라 꽃이 피고지여도 인류의 심장속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치는 김정일화는 언제나 붉은 꽃잎을 활짝 펼치며 누리를 밝게 비치는 주체의 빛발속에 영원히 만발할것이다.

본사기자

《조선인민을 알게 되였습니다》

2월의 봄명절을 맞으며 우리 인민의 뜨거운 마음과 마음들이 펼친 그리움의 꽃바다, 흠모의 꽃바다 제22차 김정일화축전장.

여기서 우리는 외국의 벗들이 감상록에 남긴 글들을 읽을수 있었다.

《이렇게 한가지 꽃으로 입체화된 꽃축전을 처음 보았다. 모든 전시대들의 꽃들이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있다.

…자기 령도자에 대한 사랑과 정을 지닌 조선인민들을 알게 되였다. 조선의 모든 일이 훌륭하게 되기를 축원한다.》

《이처럼 아름다운 축전에 초청하여준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오늘의 축전은 조선인민의 진정한 정신을 보여준 축전이다.》

…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열화와 같은 충정이 어린 불멸의 꽃축전장에서 외국의 벗들은 한목소리로 조선인민을 알게 되였다고 하였다.

이 세상 끝까지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받들고 따르려는 인민의 한마음, 그 불타는 충정으로 하여 승리만을 떨치는 위대한 인민의 모습을 대후적인 꽃의 세계를 통하여 더 깊이 알게 된 그들의 격정은 축전장에 흠모의 열기를 더해주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탄생 76돐경축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탄생 76돐경축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가 15일 일본 도꾜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모형과 《주체31(1942)-107(2018)》이라는 글발이 걸려있었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숭고한 민족애, 동포애로 수놓아진 은혜로운 사랑의 력사를 세세년년 빛내여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승리의 신심드높이 재일조선인운동발전의 결정적인 돌파구를 열어나가자!》라는 구호들이 모셔져있었다.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남승우부의장, 배익주부의장, 배진구 부의장 겸 사무총국장, 강추련 부의장 겸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홍인흠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장명대 조선대학교 학장, 총련중앙 고문들과 국장들,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소장, 간또지방의 총련본부위원장들, 중앙단체, 사업체의 책임일군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는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허종만의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조국의 근대와 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를 벌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탄생 76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뜻깊은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우리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생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항일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백두의 천출위인이시며 주체위업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라고 그는 높이 칭송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심화발전시키시였으며 우리 조국이 온 세계가 경탄하는 사상강국, 정치강국으로 빛을 뿌리도록 해주시였다고 격찬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은 조국의 운명을 관가리하는 가장 엄혹하였던 1990년대에 주체위업을 진두에서 이끄시어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극악한 포위압살공세속에서도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주체조선의 국제적지위를 비상히 높여주신 불세출의 령장이시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전민군민이 수령절사옹위, 조국수호의 천겹만겹의 성새를 이루고 정의의 력보검으로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강권과 핵침략책동도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리며 강용한 기상으로 질풍노도쳐나아가는 주체조선의 막강한 군사력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유산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평생 현지지도강행군길을 걸고걸으시여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번영의 만년토대를 닦으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자애로운 인민의 수령이시라고 그는 칭송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은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 숭고한 민족애를 지니시고 온 겨레를 자주통일과 민족대단결의 길로 현명하게 이끄시여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시대를 열어놓으신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라고 격찬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은 지난 세기말엽의 정치적격랑속에서도 사회주의기치를 더 높이 추켜드시고 인류의 자주화위업을 힘차게 전진시키시여 세계 진보적인민들로부터 무한한 존경과 신망을 받으신 세계정치의 원로이시라고 하면서 그는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을 주체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고 재일동포들의 행복과 후대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고 감격에 넘쳐 말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구현하시여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사소한 손색도 없이 빛내여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세련되고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주체위업은 새로운 력사적단계에 들어섰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병진의 위력으로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사회주의승리의 진격로를 열어놓으시여 주체조선의 강성번영을 비약적으로 앞당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며 조국의 앞길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고 그는 확언하였다.

그는 어버이장군님께서 생전에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들려주신 사랑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과 반미대결전을 진두에서 령도하시는 그토록 분망하신 속에서도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주실수 있는 모든 은총을 다 베풀어주고계신다고 말하였다.

총련은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우리 조국이 창건 70돐의 대경사를 맞는 뜻깊은 올해에 총련의 본태를 다시금 세계만방에 힘있게 과시하고 재일조선인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돌파구를 열며 애족애국의 성스러운 행로우에 반드시 새로운 리정표를 세울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건국업적과 주체조선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세계만방에 떨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을 가슴깊이 새기고 승리의 신심과 락관을 안고 재일조선인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유훈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만 계시면 조국의 평화와 안전, 사회주의의 번영은 끄떡없으며 주체위업의 최후승리와 더불어 총련의 승리와 재일동포들의 행복, 후대들의 창창한 미래는 확고하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모두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대오의 일심단결과 동포들사이에 오가는 따뜻한 정을 위력한 힘으로 하여 공화국창건 7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조국인민들과 숨결도 보폭도 같이하며 총련 제24차 전체대회를 계기로 재일조선인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돌파구를 열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삼가 드리는 편지가 랑독되였다.

대회는 《김정일장군의 노래》합창으로 끝났다.

한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탄생 76돐경축대회와 경축모임이 오사까, 효고, 교또, 아이찌, 히로시마, 후꾸오까, 후가이도를 비롯한 일본 각지의 총련본부들에서 진행되였다.

총련중앙강연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탄생 76돐경축 총련중앙강연회가 12일 일본 도꾜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였다.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부의장들,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일군들, 중앙단체, 사업체 책임일군들, 간또지방의 총련본부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강연회에서는 우리 나라 기록영화 《주체시대를 빛내이신 절세의 위인》2 《위대한 전환》이 상영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록화강연 《숭고한 헌신의 한평생》을 시청하였다.

강연은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고 일찌기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한평생 조국과 인민에 대한 가장 뜨거운 사랑과 희생적인 헌신의 자욱을 수놓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을 감명깊게 펼쳐보이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애국헌신의 한평생을 가슴뜨겁게 회고하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할 충정의 한마음을 다시금 굳게 간직하였다.

재일동포들의 예술공연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탄생 76돐경축 재일동포들의 예술공연이 15일 일본 도꾜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남승우부의장, 배익주부의장, 배진구 부의장 겸 사무총국장, 강추련 부의장 겸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홍인흠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 고문들, 국장들,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소장, 중앙단체, 사업체 책임일군들, 간또지방의 총련본부위원장들, 총련일군들, 동포들, 조선대학교 교직원, 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공연에는 총련 금강산가극단 예술인들과 녀성동맹 명원들,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출연하였다.

교향곡 《애국가》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합창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 설화와 영상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창재남독주 《매혹과 흠모》, 혼성2중창 《사랑의 미소》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비범한 예지를 지니시고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정력적인 령도로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시였으며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절절한 그리움의 세계를 감명깊게 펼쳐보였다.

관람자들은 무대배경에 모셔지는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격정속에 우러르면서 총련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과 재일동포들과 맺으신 뜨거운 혈연의 력사를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녀성중창 《내 심장의 목소리》, 남성중창 《우리는 만리마기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안고 만리마속도로 내달리는 조국의 힘찬 진군에 발걸음을 맞춰나가려는 재일동포들의 의지를 잘 형상한것으로 하여 관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공연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일편단심 받들어나갈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은 관현악 《김정은장군께 영광을》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공연은 합창 《원수님 따라 총련 앞으로》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정당, 단체

범죄자를 비호하는 사법당국을 규탄

보도들에 의하면 남조선의 정당, 단체가 박근혜년과 최순실족속을 불러온 전대미문의 권력형부정부패사건에 련루된 범죄자들을 비호하는 사법당국을 규탄하였다.

7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원이 삼성전자 부회장 리재용에게 형식상의 형벌을 선고하고 석방하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비난하였다.

그는 사법부가 제벌에게 굴복한것은 사법사상 오점으로 기록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당 원내대표는 6일 수많은 국민이 박근혜와 리재용으로 련결되는 구시대적정경유착을 똑똑히 보았는데 법원은 그들 피해자로 둔갑시켜 풀어주었다고 단죄하였다.

그는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신호탄을 기대한 국민의 허탈감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개탄하였다.

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어떤 리유로 리재용에게만 범죄증거자료들이 효력을 상실하는지 재판부에 묻지 않을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적폐를 청산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새로운 사회를 세워가려는 촛불투쟁의 정신을 재판부가 무참히 유린하였다고 단죄하고 단체는 국민은 더이상 사법당국을 신뢰할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남조선대학생단체

북침전쟁연습의 완전중지를 요구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10일 남조선의 대학생진보련합이 서울의 미국대사관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북침전쟁연습을 완전히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남북관계개선과 평화를 위한 북의 성의있는 노력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고있다고 말하였다.

특히 남북단일림선수들의 모습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세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것 같았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반공화국제재압박소동에 매달리는것도 모자라 남의 땅에까지 와서 대결광란국을 벌리며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조성된 평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있다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그들은 북침합동군사연습은 앞으로 영원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집회참가자들은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라!》고 웨치며 해록격기, 해항공모함 등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을 까부시는 의식을 벌리며 미국의 핵전쟁도발책동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규탄대상이 된 훼방군, 고조되는 반미기운

최근 남조선의 각계에서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와 북남화해흐름에 훼방을 놓으며 못되게 놀아대고있는 미국의 비렬한 책동들을 비난하고 규탄하는 목소리들이 급격히 높아지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참예한 대결장으로 만들려고 획책하고있는 미국무대통령 펜스를 비롯한 트럼프패거리들의 무례하고 치졸한 망동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여러가지 형태의 대중적인 항의행동들을 진개하고있다.

민중당, 《국민주권련대》 등 진보적인 정당들과 각계 시민운동단체들은 남조선주재 미국대사관을 비롯한 곳곳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들을 열고 《미국은 올림픽과 남북화해를 방해하지 말라.》,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라.》, 《이 땅에서 사라지라.》 등의 반미구호들을 웨치면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에 찬물을 뿌리는 미국의 대결망동을 강력히 성토하고있다.

민중당 경상남도당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미국무대통령 펜스가 《전략적인내시대는 끝났다는것을 알리기 위해 평창에 간다.》느니, 《올림픽에서 조선의 선전전을 방치하지 않을것》이라느니 하고 로골적으로 떠들어댄데 대해 격분을 표시하면서 펜스의 망동은 우리 민족이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것을 어떻게 하나 방해하려는것이라고 폭로하였다.

그는 미국이 북남관계개선흐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적인 무력증강과 전쟁연습, 반공화국제재압박 등을 계속 이어가고있는것은 이 땅에서 커어이 전쟁을 일으킬 속내를 드러낸것이라고 까밝히면서 미국은 올림픽과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훼방을 그만두고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키는 전략자산들을 철수시켜야 하며 합동군사연습을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범죄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라고 웨쳤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도 성명을 발표하였다. 단체는 성명에서 북남관계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미국을 규탄한다고 하면서 미국은 북남화해의 흐름을 방해하지 말고 우리 민족내부문제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이 끝까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고집하며 북과 남의 화해와 협력을 방해하고 조국통일의 길을 가로막는다면 전 남녘민중의 대중적인 반미반전투쟁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남조선의 대학생들은 미국대사관앞에서 집회를 열고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끝난 직후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려는 미국의 무분별한 기도를 폭로하면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침략전쟁연습을 영구히 중단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집회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전략폭격기, 핵항공모함 등 침략전쟁연습에 동원되는 미국의 전략자산들을 형상한 그림판들을 격파하는 모습들을 펼쳐보이면서 반미기운을 더욱 고조시키였다.

이러한 속에 미국언론들이 조선반도에 감도는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외곡보도하면서 남조선 각계의 반미감정을 더욱 치솟게 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모처럼 개선의 궤도에 오른 북남관계를 파괴하려고 미쳐날뛰는 미국의 무분별한 망동을 단죄규탄하면서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미국과의 동맹은 필요없다.》, 《미국과 극우보수세력의 민족리간책동을 분쇄하고 남북이 하나되여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등의 구호들을 웨치며 반미투쟁을 더욱 적극화하고있다.

한편 《한겨레》를 비롯한 남조선언론들과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을 비롯한 인사들은 미국이 올림픽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반공화국압박분위기를 고취하는것만 벌려놓고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해 《올림픽정신에 배치되는 유치한 정치행위》, 《올림픽에 대한 위협》, 《무례한 행동》 등으로 비난을 퍼붓고있다.

지어 남조선의 집권상층부안에서까지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에 제동을 거는 미국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있다.

그들은 남조선을 행각한 펜스가 올림픽은 안중에도 없이 《력공조》를 떠들어대는가 하면 인간쓰레기들을 끌고 《친한기념관》이라는데 찾아가 입에 담지 못할 악담을 퍼붓며 태극광기를 부린데 대해 《미국이 파도한 정치적행위를 하고있다.》, 《남의 잔치집에 곡을 하러 왔는가.》, 《이것이 례의인가.》고 불만을 터치였다.

현실은 우리 공화국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으로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어떻게 하나 해치고 반공화국압살아망을 실현하려고 미쳐날뛰는 미국에 대한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분노가 날을 따라 더욱 고조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에서 높아가고있는 반미기운, 적극적인 반미투쟁은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의 악랄한 훼방군이며 조선반도평화의 파괴자인 가증스러운 미국에 대한 남녘민심의 응당한 분노의 폭발이다.

본사기자 박철준

정세를 격화시키는 전쟁광신자들의 도발행위

미국이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앞두고 남조선군부호전광들과 야합하여 우리의 핵 및 미싸일을 제거하기 위한 수법을 련마한다고 하면서 《워리어 스트라이크》라는 명칭을 단 군사훈련을 벌린 사실이 공개되였다.

지하갱도를 비롯한 모의시설들에서 감행된 훈련에는 미2사단이 주력이 되여 참가하였다. 이 사단으로 말하면 지난 조선전쟁때 악명을 떨쳤고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침략전쟁연습때마다 선전대적역할을 하는 부대이다. 미군부당국자들은 미2사단이야말로 특지와 해상, 공중전투능력과 정밀타격능력을 다 갖춘 《최정예사단》이라고 하고있다. 바로 이런 부대가 다른 때도 아니고 북남사이에 대화가 진행되고 조선반도에 긴장완화의 기운이 감돌고있는 시기에 남조선군부호전광들과 우리를 겨냥한 전쟁불장난소동을 벌렸다.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좋게 나아가고있는 북남관계개선흐름을 한사코 가로막아보려는 전쟁광신자들의 도발행위로밖에 달리는 볼수 없다. 미국이 의도적으로 조선반도정세를 격화시키고있다는것이 다시한번 여실히 드러났다.

애초부터 미국은 북남관계개선을 바라지 않았다. 올해초 우리의 대범하고 통이 큰 제안에 따라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성과적으로 치르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이 취해지고 세계가 이에 환영의 뜻을 표시하자 미국도 앞에서는 지지한다, 북과 남이 잘되기 바란다, 북남대화와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기간에는 그 어떤 군사적행동도 없을것이다고 제법 평화에 관심이나 있는것처럼 생색을 냈다. 하지만 실지 미국이 한 짓거리들을 보면 그것이 한갖 기만술책에 불과한것이였다는것이 너무나도 명명백백해졌다.

미국은 고의적인 정세격화로 북남관계개선과 긴장완화의 분위기를 깨버리기 위한 못된짓만 하고있다. 북남사이에 대화가 한창 진행되고있을 때 전쟁연습을 벌리고 조선반도주변에 핵전략자산들을 들이밀며 정세를 긴장시켰다. 그런가 하면 조선을 폭격할 때가 되였다는 미국관리들의 발언과 우리의 전략적대상물들에 제한적인 군사적타격을 가하는 문제를 은밀히 토의하고있다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리기도 하였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올림픽봉화가 꺼지는 즉시 《북남관계의 해빙》도 끝내려는것이 저들의 목적이며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끝나자마자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겠다고 고아대는 정도에 이르렀다. 지어 조선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될 경우 군사적선택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망발을 서슴없이 웨쳐대고있다.

미국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확신하게 되는것이 있다. 그것은 북남관계의 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순조롭게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세격화의 주범인 미국의 간섭과 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는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공화국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에서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동적으로 여러가지 중대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에 의하여 모처럼 마련되였던 여러 갈래의 북남대화는 다 깨여져나갔고 북남관계는 악화의 길로만 걸어왔다.

력대로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북남관계개선과 정세완화분위기가 나타나기만 하면 전쟁불장난소동으로 찬물을 끼얹었다.

지난 2014년에도 우리의 적극적이며 성의있는 조치들에 의하여 북남관계가 개선될 움직임이 보이자 군사, 외교당국자들을 서울에 들이밀어 남조선당국자들을 압박하였다. 년초부터 전쟁연습을 련속 벌려놓으면서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켰다.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문제해결을 위한 북남적십자실무접촉이 진행되는 시각에는 조선서해상공에 《B-52》핵전략폭격기편대를 들이밀어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을 노린 도발적인 폭격연습을 강행하였다. 저들의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금강산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행사가 진행되자 망대한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면서 분위기를 흐려놓았다. 조선반도에서는 긴장격화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전쟁위험은 더욱 커졌다.

미국이야말로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며 우리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는 장본인이다. 만일 미국이 아니였다면 우리 겨레는 년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가슴아픈 민족분렬의 쓰라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것이며 미국이 침략전쟁정책을 추구하면서 정세를 격화시키지 않았더라면 우리 민족은 자체의 힘으로 이미 통일을 이룩하였을것이다.

지금 전체 조선민족은 북과 남에 다같이 의의있는 올해에 민족적대사들을 성대히 치르고 통접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2018년이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력사에 기록되기를 바라고있다.

국제사회도 올해에 북남관계개선의 활로가 열리고 조선반도에 평화적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있다. 그렇게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미국이 전쟁연습을 중지하는가 마는가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더욱 도전적으로 나오고있다.

우리 민족과 세계의 정당한 요구에 호응해나올 대신 당치않게도 우리의 《위협》을 막기 위한것이라는 잡소리들을 줴쳐대며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무조건 강행하겠다고 억지를 쓰고있다. 이러한 케케묵은 주장은 절대로 통할수 없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전쟁연습소동을 벌려놓을 때마다 조선반도에서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이 조성되고 평화가 항시적인 위협을 받았다는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미국은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를 우롱하고있다.

조선반도정세가 또다시 악화될 위험이 조성되고있다.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조짐이 나타나고있다. 숱한 전략자산들과 방대한 병력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로 밀려들고있다.

북남관계개선과 긴장완화의 분위기가 깨여지게 된다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지게 될것이다. 미국이 아무리 갖은 요술을 다 부려도 그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리학남

씨릴 라마포싸 남아프리카대통령으로 선거

남아프리카에서 씨릴 라마포싸가 15일 대통령으로 선거되였다.

이전 대통령 자코브 제뚤레이 홀레키사 주마는 14일 밤 자기의 사임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평화과정의 공정한 후원자가 아니라고 주장

팔레스티나대통령 마흐무드 아빠스가 6일 한 집회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은 중동평화과정의 공정한 후원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꾸드스를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한데 대해 배격하는 립장을 다시금 밝히고 그는 그러한 망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팔레스티나는 평화회담을 위한 어떠한 초청도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꾸드스에 관한 미국의 결정은 단호히 배격한다고 언명하였다.

수리아를 분렬시키려는 미국을 비난

로씨야외무상 쎄르게이 라브로브가 최근 한 연설에서 수리아의 분렬을 꾀하는 미국을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이 합법적정부의 요청이 없이 수리아에 무력을 남겨둔것은 《이슬람교국가》를 타승하기 위한것이라는 주장이 거짓이라는것을 보여준다고 폭로하였다.

지금 미국은 수리아의 정권교체를 위한 《안정된 정치적조정과정》이 이 나라에서 시작되였다고 확신할 때까지 미군무력을 계속 주둔시킬것이라고 로골적으로 떠들고있다고 그는 까밝혔다.

그는 미국이 수리아를 분렬시키려는 로선을 내세우고있으며 이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있다고 강조하고 수리아사회의 각이한 요소적인 문제를 가지고 장난질하는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미싸일계획에 대한 간섭을 배격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의 대외사업담당고문 알리 아크바르 벨라야티가 14일 기자회견에서 미싸일계획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였다.

이란의 미싸일계획은 내적인 문제인것만큼 다른 나라들이 관심을 가질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는 이란은 국가적리익에 따라 자체의 방위체계를 개발하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세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미싸일문제를 협상탁에 올려놓는 일은 절대로 없을것이라고 단언하였다.

반테로작전

케니아군대가 14일 라무시에서 테로소탕작전을 벌려 3명의 테로분자를 소멸하고 많은 무기와 탄약, 폭발물을 압수하였다.

같은 날 인디아의 동북부국경지역에서 테로를 일삼던 악당이 체포되였다.

유럽동맹 가금업체들에서 생산량 감소

유럽동맹성원국 가금업체들에서 최근년간 조류독감으로 고기생산량이 감소되고있다.

유럽동맹이 추산한데 의하면 2017년 고기생산량은 1.7%, 2016년에는 4.4% 줄어들었다.

지난해 1.4분기에 고기생산량이 가장 많이 줄어든 동맹성원국은 빌가리아로서 감소률이 12.5%였으며 마쟈르와 도이췰란드는 각각 7.3%, 1.3% 감소되였다.

전문가들은 생산량감소의 원인이 조류독감이 퍼진데 있다고 하면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기간에만도 유럽동맹의 17개 나라에서 1 100여건의 조류독감비루스발생건수가 등록되였으며 그중 485건은 프랑스에서 발견되였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ㄱ-810282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독자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